

혁 명

Revolution

- 자본주의 체제의 변호론이 된 진보 담론들
- 820 희망시국대회 -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민주대연합 제단에 바치다
- [유성지회 투쟁] 왜 패배했고,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 리비아혁명 제1단계의 승리 - 혁명 전진을 위한 당면 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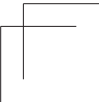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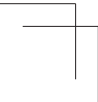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혁명

창간준비
2호

Revolution

- 발행일 : 2010년 08월 27일
- 발행처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 /wrp](http://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값 : 5,000원



혁명

창간준비
2호

목차

- 창간준비 2호를 내며 4
- [희망버스] 자본주의 체제의 변호론이 된 진보 담론들 - 임천용 6
- [820 희망시국대회]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민주대연합 제단에 바치다! - 김명석 12
- [한진 중공업 해고자 인터뷰] 한진노동자, 청문회를 넘어 계속 전진!!
- 이용대 / 김병호 20
- 더블딕 우려? 이미 자본주의 체제위기! - 이민수 29
- [유성지회 투쟁] 왜 패배했나?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 구재보 37
- 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 양재훈 43
- 리비아혁명 제1단계의 승리 : 혁명 전진을 위한 당면 과제들 - 양재훈 48
- 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 좌클릭? - 남궁원 51
-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 김병호 55
-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 - 오세철 62
- [기고]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복수노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 김창연 77
- [기고] 노동조합투쟁과 '사회주의자' 조직 - 김태훈 85
- [독자비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발걸음에 든든한 깃발이 되길 89

〈혁명〉 창간준비 2호를 내며

“

전 세계적으로 솟구치는 계급투쟁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 운동은 여전히 대중투쟁을 가로막는 민주대연합,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꺾데기는 가라!”

”

〈혁명〉 창간준비 1호를 내면서 밝혔듯이, 오늘 우리는 혁명이 더 이상 당위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는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가 끝 모를 위기에 빠져들면서 고장 난 채 굴러가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대안 사회의 도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 망해가는 자본주의를 아직도 우리들이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도록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보’의 탈을 쓰고서 우리들한테 자본주의에 감히 도전할 생각 일랑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수 이념의 아성인 조선일보조차도 이러다가 자본주의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자본주의 4.0’인가 뭔가 하는 자본주의의 새 버전을 내놓고서 대중들을 현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7월에 이어 8월의 핵심 정세 축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철폐를 둘러싼 희망버스 투쟁입니다.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대중의 자발적인 희망버스 투쟁이,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대중투쟁들과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희망버스 투쟁이 야권연대 틀에 갇히지 않고, 희망광장으로, 더욱더 대중 직접행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변호론이 된 진보 담론들〉, 〈820 희망시국대회 -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민주대연합 제단에 바치다!〉 〈한진 중공업 해고자 인터뷰〉 기사들은 지금의 희망버스 정세에서 '진보' 인사들의 정리하고 철폐 요구를 바라보는 시각과 야권연대 비판, 그리고 정리하고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유성지회 투쟁이 패배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투쟁의 과제는 그대로 엄존해 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현장 탄압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노동 철폐와 주간연속 2교대 쟁취'를 둘러싼 유성지회 91일간의 투쟁 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해 동지들과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유성지회 투쟁은 왜 패배했나?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에서 던진 평가와 제안은 우리 모두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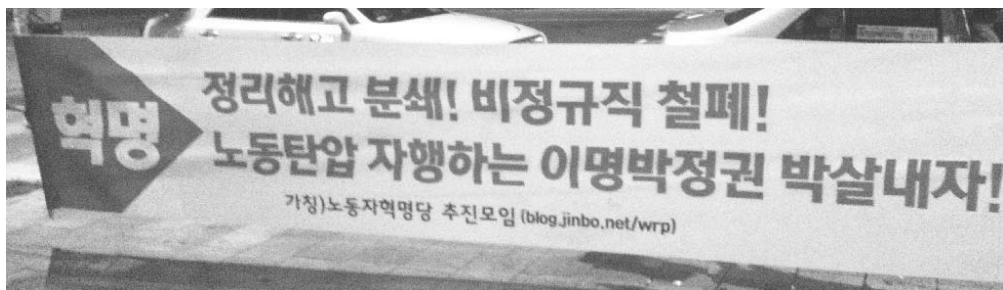
정세 쟁점 글로는 〈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좌클릭?〉과 〈리비아혁명 제1단계의 승리〉가 있습니다. 두 기사는 국내 지배계급과 야당의 복지 경쟁의 의미, 리비아혁명이 연속혁명으로 나가기 위한 당면 투쟁 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급의식,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은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을 결합하려는 기획연재 글이며, 두 개의 기고 글은 도시철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수노조 문제와 사회주의자 조직들의 일상적인 연대투쟁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독자비평〉 글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의 적절한 전술적 지침"과 "현장에서 투쟁하는 투사들의 목소리가 수록되기"를 바라는 반가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에 〈혁명〉지 편집진은 최대한 부응하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비판적 견해가 담긴 기고들을 기다립니다.

혁명

2011년 8월 27일



[희망버스] 자본주의 체제에 변호론이 된 '진보' 담론들

임천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리하고 없는 세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일부 단위사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리하고 없는 세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는 것이 황당하고 가망 없는 모순투성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희망버스의 상상력과 사회주의를 향한 계급투쟁은 정리하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백가쟁명식으로 제출되고 있다. 모두가 자칭 전문가부터 진보적 학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문제가 지난 3년간 언론에 의해 조명된 횡수는 최근 3개월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다. 희망버스는 대중적 참여를 끌어내면서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지회의 직권조인과 자본가 언론들의 무차별적 이념공세, 여론몰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날로 확산되고 있다. 6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백가쟁명식으로 제출되고 있다. 모두가 자칭 전문가부터 진보적 학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문제가 지난 3년간 언론에 의해 조명된 횡수는 최근 3개월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다. 희망버스는 대중적 참여를 끌어내면서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지회의 직권조인과 자본가 언론들의 무차별적 이념공세, 여론몰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날로 확산되고 있다. 6월에서 7월 그리고 8월로 넘어가는 동안 자본가 언론들은 한진중공업 사태가 해결되었다며 환호하다가 다시 대화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비굴하게 논조를 바꾸고 있다.

이미 7월 22일에 문화일보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는데, 거기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대 김기원 교수의 견해도 인용되어 있다. 인용된 내용인 즉슨, '한진중공업 사태는 기업의 근

본적 시장경쟁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하듯 정치투쟁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 노조, 정부, 시민대책위 등이 모여 영도조선소의 정리하고 규모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해고자들의 고통분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자본가 언론들에게 자칭 진보적 교수의 말들은 상품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2차 희망버스에 대한 무차별적 비난 공세로 3차 희망버스를 전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품에 안긴 진보적 담론

그러나 7월 30일 3차 희망버스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참여의 폭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정리하고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가일층 발전했다. 자본가들과 언론들을 당황했다.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먹히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고 이이제이 식으로 진보의 탈을 쓰고 희망버스를 비판할 만한 인사들을 물색했다. 이에 민감한 촉수를 가진 김기원과 김대호(사회디자인? 연구소장) 같은 "진보적 전문가들"은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빨리 쓰게 된다. 7월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은 것들이 8월 초에 자본가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





왼쪽부터 김기원과 김대호

라 언론들에 대서특필됨으로써 전면적인 논쟁으로 번졌다.

이러한 배경은 자본가계급의 배타적인 논리로는 여론을 역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적인 척하는 학자들의 논리를 인용해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자본주의 옹호자이면서도 진보적인 외양을 갖춘 전문가들이 안성맞춤이다. 사회적 쟁점이 가려있지 않을 때 양비론을 포함하여 중립적 가치로 포장되어 있는 논리들은 드디어 상품성을 획득하게 된다.

최근 희망버스에 대한 담론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기원, 김대호 같은 자들이 희망버스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들을 진보로 포장해주고, 마치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인 것처럼 온화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옹호하는 계급적 입장에 충실한 것이다. 이들은 자본가들을 상대로 한 문필 판매업자에 다름 아니고 이번에 온 좋게 희망버스 덕에 상품성

을 극대화한 것이다.

자본의 노예가 되어있는 학자들의 논리는 자본가들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껏해야 진보적인 탈을 쓰고 있지만 한 꺼풀 벗기면 그들의 본질이 드러난다.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 복무하는 학자들의 논리는 사실적 근거만 제시하면 금세 논박되고 만다.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착취와 억압은 노동자들의 눈으로 볼 때 선명하게 보인다.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정리해고로 내몰고 자본가들에게는 감세를 하는 세상은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체감하게 한다. 그런데 김기원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망버스의 상상력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막으려 한다. 반정부시위와 정치투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투쟁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 한정되기를 희망한다.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실현가능한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마치 사회주의는 모종의 불량체제라는 듯 겁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겁먹지 않고 실상을 똑바로 쳐다본다면 자본주의야말로 한줌의 자본가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압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불량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실을 인정한다면 자본주의는 타도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만적인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자본가들이거나 자본가 정치인들뿐이다. 비겁하게도 자본가들,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 자체가 착취와 실업의 체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논란들의 성과는 착취와 실업으로 연명하는 자본주의의 비밀을 자본가 언론들의 입을 빌어 무의식중에 풀어놓은 것에 있다.

개량주의적 환상에 빠진 진보적 담론

그런데 진보적인 김세균 교수는 “변혁을 추구하는 운동 역시 현실에서는 개혁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변혁은 사실은 개혁의 좌절이 만들어내는 질곡을 타파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서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사회주의적 목표를 갖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운동을 추구할지라



김세균 교수

도 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정리해고의 남발과 비정규직의 최소화를 위한 운동의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사회주의적 구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본가들을 안심시키려하고 있다.

김세균 교수는 개량과 혁명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변혁은 개혁의 좌절이 만들어내는 질곡을 타파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는 입장은 “개량은 혁명적 투쟁의 부산물”이라는 전통적인 혁명적 입장에 대립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개량주의적 변호론의 문학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아직도 혁명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이집트에서는 혁명적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4월 공공부문 노동자 40만 명이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남한에서는 혁명적 상황은 고사하고 아직 북아프리카나 유럽, 남아메리카와 같은 반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혁명적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이 현실에서는 “정리해고 남발과 비정규직의 최소화”를 위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한참 오산이고 대중의 혁명적 상상력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이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폐투쟁위원회와 희망버스는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투쟁은 불가능한 요구를 내건 것이 아닐뿐더러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촉구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 동안 차가운 철판 위에서 공장점거파업을 진행한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를 외치며 희망버스에 오른 참가자들은 김세균 교수의 바람과 다르게 정리해고, 비정규직 최소화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투쟁했다. 만약 개량주의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지금의 희망버스가 주장하는 정리해고 철폐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고, 단순히 대중을 하나의 기치로 모으기 위해 적절한 구호를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게 된다.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대중들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처럼 비취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은밀하게 변호하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비밀을 고민하게 만들어 준 김기원 같은 자칭 진보적 인사보다 오히려 해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자본가 언론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이야기 할 때, 이렇게 야만적인 체제를 타도할 것이 아니라 보수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개량주의적 환상에 빠져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자본가 언론들의 정략에 의해서 논쟁적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 사회주의 사회인가 아닌가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8월 23일 4차 희망버스 기조와 계획을 선포하는 희망버스 참가단 기자회견

것은 계급투쟁과 계급역관계 속에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별 사업장의 경우 정리하고 없는 정규직화 사업장은 가능하다.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하고 철회는 불가능하지 않다. 현대차 1만 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커녕 탄압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차를 보면 노사가 서로 양보해야 해결된다는 학자적 관전평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 사업장 사안일지라도 전체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가 단체와 정부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의 만성적인 위기 상황은 단위사업장 투쟁까지도 더욱 긴밀히 전체 계급투쟁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고, 전체 자본과의 대리전이 되고 있다. 아무리 단위사업장 투쟁을 전체 자본가계급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확대시키기를 꺼려해도 이미 자본가계급은 전경련, 경총 그리고 청와대를 통해서 총체적 대응을 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은 개량적 환상이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 단위사업장 투쟁이 전체 자본에 대한 대리전이 됨으로써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부분의 투쟁들만 보아도 단위사업장 동지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본가계급에 의해서 노동과 자본의 대리전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거꾸로 자본가 계급에 대항한 투쟁 속에서만 단위사업장 투쟁도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리하고 없는 세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일부 단위사업장에서 가능하지만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포로가 되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리하고 없는 세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는 것이 황당하고 가망 없는 모순투성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희망버스의 상상력과 사회주의를 향한 계급투쟁은 정리하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역명**



[820 희망시국대회]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민주대연합 제단에 바치다!

김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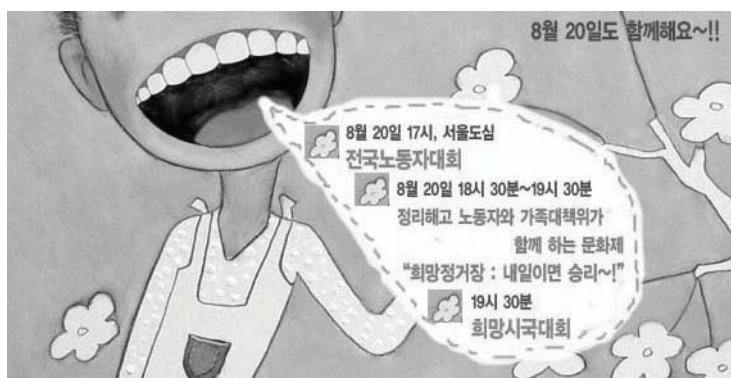
희망버스 기획단은 4차 희망버스 조직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제 희망버스는 단순히 한진중공업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정리하고 문제와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희망버스는 계속 될 것”이라 선언했다. 이를 위해 4차 희

망버스는 820 희망시국대회 일주일 후 배수진 성격의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뒤에 820 시국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희망버스에 참여했었던 대중들은 820 시국대회와 4차 희망버스가 함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두 가지 논란과 두 가지 입장

3차 희망버스가 끝나고 820 희망시국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 그 중에 두 가지 논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희망버스와 희망시국대회를 분리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희망버스 참가단은 '희망정거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희망시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820희망시국대회를 몇 일 앞두고 민주노총에서는 사전에 공유되지 못한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희망버스 참가단이 기획한 '희망정거장' 프로그램의 진행을 반대하고 따라서 '희망정거장'은 진행되지 못한다. 위 사진은 온라인상에 배포되었던 홍보물이다.

하나는 민주노총과 야당이 함께하는 희망시국대회에 대한 것이다.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의 주체는 조직 노동자들이고, 민주노총이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직접적으로 희망버스 투쟁의 압력에 의한 성과인데, 굳이 4차 희망버스와 분리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노동 문제가 전 민중적, 정치적 의제로 확산된 시기에 희망버스의 자발성을 집단적인 조직노동자의 힘과 결합해야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다른 입장은 함께해야 한다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정리하고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상층의 교섭에만 매달리며 투쟁을 방기해 온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의 기회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태를 비난하며, 자본가 정당들과 함께하는 운동으로는 오히려 자발적 운동의 힘이 약화되리라는 입장이었다.

다른 하나의 논란은 3차 희망버스 마지막 날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태도의 연장이다. 희망버스 대중들을 병풍처럼 뒤에 세워 놓은 채 벌인 정치인들의 위신 세우기성 기자회견

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민주당 의원까지 함께 했으니 희망버스의 힘이 더욱 커지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있었다. 전자는 희망버스 대중들의 투쟁의지를 억누르고 진정성을 왜곡하는 위선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확실한 거부이자 자발적 운동을 가로채려고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후자는 대중들의 투쟁을 국회 안으로 가져가서 청문회라는 틀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이 두 가지 논란을 통해서 820 희망시국대회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기대와 우려의 지점을 알 수 있다.

자본가 정치인을 발언대에 올려야 성이 차는 민주노총 지도부

3차에 이르는 희망버스투쟁은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적 자각과 투쟁본능을 일깨웠다. 소금꽃 김진숙을 구하고자 시작된 희망버스 연대투쟁은 3차에 이르는 동안 자본과 정권의 온갖 탄압과 폭력 그리고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우리가 소금꽃이다”며 더욱 고양된 강고한 연대의식과 투쟁의지를 드러내며 막힘없는 전진을 해왔다. 이 투쟁의 전진은 그동안 단사의 조합적인 의제로 갇혀 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투쟁을 정치이슈화 하는 데 성공하며 움츠려 있던 조직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 의식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며 단결된 투쟁에 나서도록 추동했다. 820 희망시국대회는 이러한 조직노동자들의 고무된 투쟁의지와 열망을 받아 안아



한진중공업, 재능교육, 발레오공조,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동지들로 구성된 공동투쟁단이 820희망시국대회에 앞서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동투쟁단은 행진과 경찰과의 대치상황시 최선두에서 투쟁하였다.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내고 정리해고 분쇄와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중단 없이 밀어부쳐 이후 투쟁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했다.

820 희망시국대회의 물꼬는 “광화문 소금꽃밭” 공동투쟁단이 텃다. 한진 정투위를 비롯하여 재능학습지, 발레오 공조,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등 투쟁사업장의 해고자 중심으로 결성된 공동투쟁단은 광화문 노숙농성장을 중심으로, 일주일 전부터 국회 앞과 한나라당 앞 노숙 농성, 국회청문회 투쟁 등을 배치했다. 20일 5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시작 전 열린 시청 재능학습지 농성장에서 정리해고 철폐 결의대회가 열렸다. 거기에서 공동투쟁단 동지들은 “희망시국대회에 앞서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결의했다. 이것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나아갈 바를 지시해 주는 것이다.

경찰과 보수우익단체의 방해로 승례문 인근에서 열린 노동자대회는 갑작스런 대회장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오를 정비하고 전국에서 속속 올라오는 지방 대오들이 하나둘 결합하며 대오가 늘어나는 가운데 승례문 앞 4차선 대로를 완전 점거하고 “조남호를 처벌하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이명박이 해결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연호하며 가두행진을 하면서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의



정동영이 도착하자 행진하던 대오를 멈춰 세우고 포토타임 시간을 가진 후 정동영의 발언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모습

지를 서서히 불태워 나갔다.

그렇게 진행되던 행진을 가로막고 일시에 행진을 멈춰 세운 건 경찰차벽이 아니라 정동영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뒤늦게 도착한 민주당 정동영의 정치쇼를 위한 포토라인과 이 부르주아 정치인을 발언대에 모시기 위해서, 갑자기 쏟아진 세찬 장대 소낙비에도, 대중들의 야유와 고함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대중들을 힐난하는 눈초리로 쬐려보며 행진대오를 멈춰 세웠다. 정동영은 김주익, 곽재규 열사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으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고 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노무현은 김주익, 곽재규 열사의 죽음을 두고 “죽음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갔다”며 열사의 죽음을 모욕했고, 정동영은 이러한 당시 정부의 실세였다.

반면 김진숙 동지는 자신을 영웅으로 치켜 세우는 노동계와 언론을 두고 자신의 트위터

를 통해 “난 영웅이 싫다”며 “30여 년간 활동 해오면서 수많은 영웅들이 제조되었다가 폐기되는 걸 보았기에 가장 경계했던 게 영웅이었다”, “90년대 잠시 영웅노릇하면서 망가졌던 아픈 기억 때문에 영웅은 불행한 놀이라는 걸 이미 경험했다”며 “대중과 역사를 믿을 뿐이다”고 쓴 소리를 던진 바 있다.

정동영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다시 선도 차량이 움직였다. 이때는 이미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치적 속내와 투쟁의지 없음이 확인되었다. 노동자들 일부는 조직대오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탈하는 숫자가 아니라 대중의 투쟁의지를 갉아먹고 노동자들을 민주당 지지로 몰아넣는 것에 대한 정치적 실망감이다. 대중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강력한 대중투쟁을 밀어붙이는 데 복무하기 보다는 제도정치권에 기대어 기껏해야 “한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MB정권 심판”에 투쟁요구를 가두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태가 대중들의 투쟁의지와 동력을 약화 시켰다. 약화의 실체는 곧바로 드러났다. 빙빙 돌아서 시청광장을 근처에 둔 롯데호텔 옆길에 들어설 때 이미 앞을 가로막고 있던 2차 경찰 차벽은 이제 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었다. 희망버스 대중이 차벽 앞에서 보여주던 투쟁 활력은 여기서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물대포와 최루액, 경찰의 방패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던 전투성은 사라졌다. 심지어 차벽 옆을 막고 있는 경찰력과의 가벼운 실랑이조차도 없



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경찰이 협의한 바로는 9시에 열어준다더라, 12시에 열어준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누가 싸우려 하겠는가? 노동자대회는 이렇게 힘만 빠지게 한 채 끝났다.

야권연대에 노동자들을 갖다바치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책 속에서 대중투쟁의 전투적 활력과 계급대중의 투쟁의지는 고양될 수 없었다. 보이는 건 오로지 야권연대에 기댄 채 제도정치권이 청문회와 국정조사권을 통해서 해결해줄기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고 투쟁은 단지 정치권 압박수단 정도로 배치하는 나약하고 소심한 모습뿐이었다. 조직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수동화, 객체화시키고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민주대연합 공식회견장으로 변한 희망시국대회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때가 되자 경찰차벽은 열렸다. 열린 차벽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여전히 보수단체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광장을 점거한 채 집회를 하고 있었다. 시국대회 대중과 보수단체 사이에는 긴 폴리스라인이 쳐졌다. 둘 사이를 가로막은 경찰의 통제 아래 보수단체들과 큰 물리적 마찰 없이 시작되었다.

백기완 선생의 발언이 끝나고 드디어 야6당 대표들의 유세성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들은

무상급식,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반값 등록금, 정리해고 철폐, 언론자유 등을 외쳤다. 그 발언들 중 ‘백미’는 단연 민주당 손학규의 발언이었다. 3차 희망버스 출발을 앞두고 진정성은 없지만 정치적 계산으로나마 정동영도 연대를 표시하며 희망버스에 동참했는데,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표 계산을 하면서 희망버스 동참을 거부한 자가 손학규다. 이런 자가 희망시국대회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말하고 “도탄에 빠진 노동자 민중들의 희망을 되찾고자 한다”고 말한다. 뒤이어 “진보민주진영이 힘을 합치자. MB심판의 대통합 길에서 민주당이 앞장 서겠다”면서 민주대연합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시국대회 연단을 활용했다. 노회한 정치꾼답게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른 야당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며 꼭 승리할 것이다”라며 자본가정당들의 대표들과 친근하게 어깨를 걸고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820 희망시국대회와 그 대회를 위한 사전 집회 성격인 전국노동자대회의 들러리 본질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스란히 민주대연합을 위한 제단에 갖다 바치는 모습이다. 현재 한진 동지들의 고공크레인투쟁을 비롯해 전기원노동자들의 15만4천 볼트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고공농성투쟁, 제지공장 노동자의 공장굴뚝투쟁, 1300여일을 넘게 길바닥에서 투쟁하고 있는 재능학습지 노동자들, 공동투쟁단의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 등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가 정당들과 함께하려는 정치인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받아 안을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해 대량 정리해고의 길을 닦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통해 900만 비정규직 시대를 열었다. 그럼에도 일부의 노동자들은 제도정치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조남호를 압박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일정한 양보라도 얻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철회는 없다”고 잘라 말하는 조남호를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아무튼 소망대로 조그만 양보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이 또한 투쟁의 열기가 식어지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회피할 것이 분명하다. 영웅적인 싸움투쟁을 마무리하면서 대단한 성과처럼 떠들던 대국민 사회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던 자들이다. 제도정치권을 통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도록 하자.

한편 저들은 민주대연합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만사 해결될 듯이 선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파고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전면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지 않고는 체제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추락하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대연합으로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금융자

본 몰수와 외환 통제, 국가부채 상환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복지 확충은 공염불이다. 민주대연합 보다 왼쪽에 있는 서유럽 사민주의 정당들마저도 자본의 압력에 굴복해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에게 온통 위기를 전가 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대연합이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설사 국내 자본가들을 구슬러서 그리한다면 국제 금융자본가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까? 자신들의 이윤을 건드리는 복지지출을 늘릴라 치면 당장 국제 투매로 자금을 차단하고 환 공격을 통해 해당 통화 가치를 저하시켜 물가폭등과 임금가치 하락을 일으키는 등 광란의 보복을 가 할 것이다. IMF의 압력에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인 김대중 정부를 보라. 민주대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복지 확충이 아니라 경제위기 고통 전가일 것이다. 믿을 것은 우리의 투쟁의 힘뿐이다.

민주대연합을 거부하고 자본가정당과 단절하자!

서두에서 말했던 대중들의 기대와 우려는 결국 우려로 끝맺음 됐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상층 노조 지도부들에 대한 수동적인 기대가 아니라 대중 자신들의 힘을 믿고 단호한 직접행동으로 우려를 확실하게 날려

버리고 승리의 전망을 확고하게 움켜쥐는 것이다. 대중들의 투쟁의지와 계급의식을 갈아먹는 민주대연합과 제도정치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환상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이 집회에서 비정규직 40만 명을 정규직화 하고 미국에서 공공부문 대량해고를 막아냈던 것은 의회가 아니라 대중투쟁이었다. 96년 노동법 날치기를 막아냈던 것도 강고한 대중투쟁이었다. 희망시국대회를 조직하고 조남호를 그나마 청문회에 출석시킨 것도 희망버스 대중투쟁이었다. 우리의 투쟁이 나아갈 바는 명확하다. 희망버스 투쟁을 광장점거 투쟁과 총파업투쟁으로 확대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노동조합의 관료적 지도부를 따라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자본가정당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를 가지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의 원흉인 자본가정당으

로부터 독립해나갈 것인가이다. 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자 대부분 미조직된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정치방침이다. 반면 후자는 조직노동자들이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분쇄 투쟁에 함께 서는 것이다.

희망버스 운동에서 보았듯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다수는 이미 정리해고 분쇄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 지지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가 함께 일치된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자본가 정당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갖지 않고 투쟁할 때 진정한 승리를 움켜질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과 끝까지 함께해 달라, 더 많은 분들이 4차 희망버스에서 함께 모여 희망버스가 승리의 버스가 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자”며 시국대회 말미에 전화를 통해 전한 김진숙 지도위원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자! **역명**



[한진 중공업 해고자 인터뷰] 한진 노동자, 청문회를 넘어 계속 전진!!

이용대 / 김병호



이번 기사에서는 한진 조합원과의 인터뷰를 담았다. 여기에서 담고자 한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김진숙 동지 외에 한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자 했다. 한진 투쟁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 김진숙 동지일 것이다. 그는 이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김진숙 동지의 85 크레인 농성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채길용 집행부의 기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투쟁 의지를 굽히고 있지 않은 한진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김진숙 동지도 꺾이지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바로 이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 것이다.

둘째, 한진 투쟁의 주체 상태를 드러내고자 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한진중공업 투쟁은 이미 한진중공업만의 투쟁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진중공업의 구체적인 현실과 무관한 투쟁도 아니다. 희망 버스 이후로 정리해고 문제가 다시 한 번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한진 투쟁이 노자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지만, 여전히 한진 노동자들을 제외하고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한 번의 인터뷰로 현재 조합원들의 상태를 정확히 담아낼 수는 없겠으나,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가능하리라고 본다.

여기서는 지난 6월 27일 채길용 집행부의 합의 당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85 크레인을 함께 지키던 동지들 가운데 한 명인 이용대 동지를 만나보았다. 한진 동지들이 조남호 국회 청문회와 4차 희망버스를 앞두고 한진 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터라, 청문회를 하루 앞둔 8월 17일 여의도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 이번에 단순히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 든다.

4차 희망 버스까지 상경투쟁을 상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상경투쟁의 의의는 무엇인가?

질문 : 6월 27일 채길용 집행부의 합의가 투쟁에 있어서도 많이 걸림돌이 될 텐데, 이 합의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서울을 뒤집자고 생각하고 올라왔다. 청문회와 상관없이 가열차게 투쟁하고자 올라왔다. 그런데 막상 상경 첫 날부터 날씨도 그렇고 너무 지치는 감

답변 : 합의할 당시 합의 내용을 두고 조합 간담회는 합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회장의 독단적 행동을 우려하

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6월 27일 당일 기자회견을 못하도록 조합 계단을 막아서기도 했는데, 그 땀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어쨌든 합의는 절대 전체 조합원의 뜻이 아니다.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노조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조합원 입장에서 산별노조가 왜 있는가? 한 마디로 반노동자적, 반조직적 행태이자, 조남호보다 더 심한 살인행위다.



사측과 반노동자적인 협상을 마무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채길용 집행부

질문 : 어쨌든 현재 정투위가 지회에 속하는 조직 체계인데, 지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 극과 극이다. 조남호가 행정적 절차로서 정리하고 문제에 접근했다면, 채길용은 직접 우리에게 충구를 겨눴다. 우리가 크레인에서 끌려나올 때, 채길용은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미소짓고 있었다.

질문 : 채길용 집행부의 6월 27일 반노동자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채길용 집행부에 대한 탄핵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3차 희망버스 당시 노동자 시민 일동으로 해서 채길용 집행부 탄핵 및 규탄 요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한진 조합원들이 직접 채길용 집행부 탄핵 시도한 적은 없었는가?

답변 : 유인물로는 기존에도 채길용 비판을 많이 제기했다. 하지만 채길용은 개인적으로도 걸린 것이 많아서 절대 자진사퇴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마 지회장 앞으로 압류 및 고소고발 건들이 있는데, 사측은 물론이고 부

산시를 비롯한 정부 관련기관에서의 압박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합의 내용 중에 85호 크레인 문제를 지회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사퇴한다 하더라도 사측에서 자기 개인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아 있으려 하는 것이다.

질문 : 투쟁 초기부터 금속노조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속노조가 어떻게 지금까지 투쟁을 이끌어 왔는가?

답변 : 금속노조 부양지부가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그런데 투쟁에 결합하면서 가슴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머리만 갖고 와서 아쉽다. 간부들 투쟁 오면 만나서 반갑고 술먹고, 대의원들 보내서 인사치레하고..... 집행 간부들



조차 자기 사업장에 피해볼까 하든 태도 때문에 오늘 같은 꼴이 났다. 향후에 한 번 정도는 워크 형태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뚫고나갈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전에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심한 말 한 적이 있는데, 이번 투쟁 마무리 이후에 꼭 제기하고 싶다.

관련해서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금속 선거 일정으로 여의치 않은 것은 알지만, 당장에 채길용 집행부에 대해 징계는 고사하고 최소한 입장이나 성명도 내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많다. 불신이 상당하다.

질문 : 한진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한진 동지들의 정리해고에 앞서,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대규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원 조정이 진행되었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한진 지회 동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 지부에서 비정규직 담당 대의원이었다. 매번 성과금 받을 때마다, 비정규직들과 50%라도 나뉘어야 한다. 노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 정규직들이 자기 몫이 줄어들까봐 우려해서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았을 때 협력업체까지 전부 멈출 수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살리지 못했다.

질문 : 조남호가 귀국한 이후 새롭게 형성된 대화 국면에 금속노조와 지회가 참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금속노조는 6월 27일 채길용의 합의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투쟁을 지속한다고 방침을 제출하면서도, 당장에 합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관했었는데, 이제 와서 금속노조와 지회가 어떤 요구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고 있는가?

답변 : 공식 교섭은 아니고 간담회 형태로 진행된 적이 있다. 6월 27일 합의 이후에 일단 노사정회의 형태로 대화기 진행되긴 했다. 노측은 채길용집행부 2인 및 금속노조 김호규 부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채길용은 어쨌든 임기 동안은 지회장으로서 참석하는 것이고, 결정 및 발언권은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위임하에 김호규 부위원장이 가지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청문회로 지금은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서 요구사항 중 핵심은 여전히 정리해고

철회다.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손배, 가압류 문제와 애초에 2009~2010년 입단협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질문 : 청문회와 관련하여 야5당 대표는 조남호에 대한 청문회 요구와 함께 △한진중공업 문제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 긴급노동현안 해결 위한 야5당 정책협의회 구성 △조남호 회장을 둘러싼 5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 △한진중공업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입법과 공동 국정감사를 위해 공동 보조를 맞춰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야5당 논의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야5당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한 적이 있는가?

답변 : 특별한 개입은 없다. 1차 희망버스 전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에서 관심을 보낸 적이 있었다. 노조, 정치권 모두 원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정동영과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일부도 적극적으로 관



심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정동영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정리해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 도입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일부러 상임위도 환노위에 들어간 것 아니겠나.

질문 : 한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한나라당조차도 조남호를 청문회에 세우는 것을 회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도 나름의 정치적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게다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정동영은 정리해고 도입의 책임자이다. 또한 자

신의 지역구인 전주에서 버스 파업에 대해 보이는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세력에 기대할 것이 있는가? 청문회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답변 : 물론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과는 다르게 정치인을 믿고 기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당장 현상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된다. 청문회를 통해서 조남호 해외계좌 문제, 수빅 조선소 투자 내역,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 문제 등에 대해 국세청을 통해서라도 헤집어야 한다. 조남호를 들춰냄으로써 재벌들의 행태를 까발리는 케이스가 되었으면 한다. 청문회 자체가 당장 정리하고 철회나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폭로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조남호를 비롯한 사측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고, 희망버스 관련해서도 좀 더 대중적인 결함을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질문 : 청문회를 통해서 정리하고 철회를 비롯한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답변 : 청문회를 통해 조남호의 행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사측도 합의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 여기에는 사실 사측도 내심도 깔려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밀어붙여왔는데 명분과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제 와서 정리하고 철회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나. 그래서 지노위 판결이나 청문회 등을 빌미로 어떻게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면 사측도 정리하고 문제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현장에서 사측이 추가로 희망퇴직을 받고, 이 경우에 학자금을 지원한다느니, 3년 내 정상화되면 다시 복귀시킨다느니 한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정리하고 철회가 불가피하다면 희망퇴직의 형태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내보낸 후 사실상 복귀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질문 : 한진이 수빅 조선소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을 하청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쉽사리 정책을 바꾸기 쉽지 않을 듯 한데.

답변 : 전에 필리핀 유학생이 한 번 크레인 앞으로 찾아왔었다. 부산의 어느 대학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필리핀 인권유린 문제를 알려왔다. 필리핀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만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열악한 작업 조건인 것은 물론 산재도 은폐되고 있다. 그런데 조남호는 필리핀에서 국빈 대우를 받는다. 투쟁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필리핀 가자는 이야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이 문제도 다뤄지지 않겠나?



(위 사진) 수빅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하청회사마다 각기 다른 작업복을 입고 있다.

(아래 사진) 필리핀 수빅조선소 노동조합인 사마한(SAMAHAM) 앞에서 노동자들이 촛불을 밝혔다.

질문 : 희망 버스가 한진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본다. 현장에 남아있는 동지들의 경우 희망버스에 대해 평가는 어떤가?

답변 : 출근선전전 때마다 보기 싫은 놈들 보면서 열불이 난다. 하지만 그 동지들을 잡아야 한다. 이 동지들의 경우 희망버스 진행되는 것 보면서 좀 나아지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사측의 압박도 심해졌다. 사측의 지속적인 회유는 물론이고 비대상자인 조합원들이 복귀하면서 50만원씩 투쟁기금을 내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사측이 직접 나서서 포기 각서를 받기까지 했다. 그리고 조합원들 투쟁 결합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파악하고 있다.

질문 : 3차 희망버스 당시 어버이 연합과 우익 단체들의 방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또한 지역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정서는 어떤가?

답변 : 내 고향이 영도다. 영도, 부산 경계가 침체되어 있다. 시장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영도에 있는 4개 시장이 다 작살났다. 7월 30일 3차 희망 버스 당시에 통반장들 돈 지원 받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영도 시민들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영도 시민들의 70%는 한진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어쨌든 어버이 연합이 서울의 주요 거점에 집회 신고를 다 내놓는 바람에 상경 기간에 집회조차 제대로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질문 : 희망 버스에 금속노조를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정투위 동지들도 희망 버스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 어떤 요구로 결합하고 있는가?

답변 : 어제 광화문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4차 희망 버스 기획부터 참여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희망 버스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희망 버스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김진숙 동지가 요구하고 추구했던 바

와 동일하다. 쌍차에서 15분이 돌아가셨다. 이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가족을 죽이는 것이다. 정리하고 철회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내자는 것이다.

질문 : 끝으로 희망 버스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답변 : 그리고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개인적으로 자녀가 3명이다. 당장 학자금 문제가 걸려있다. 집 담보로 대출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꿔야 하는데, 이 때문에 학교 선택에도 제한이 생긴다. 그런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것 같다. 사람 사는 세상이 뭔지, 뭐가 올바

른 것인지 많이들 투쟁에 참가해서 경험해 보면 좋겠다. 특히 학생 동지들이 약자들의 고통을 겪어보고 이해해 줬으면 한다. 여름 휴가 대신 한진에 방문한 학생들은 나중에 훌륭한 부모가 될 것이다. **역명**



〈인터뷰 후기〉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였기에, 청문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정투위 차원에서 청문회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조합원들의 행보나 발언 속에는 청문회를 통해 해결의 가닥이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정동영으로 표현되는 민주당의 좌클릭에 대한 기대감 역시 존재하는 듯 했다.

인터뷰를 하던 8월 17일에는 가대위 동지들도 상경하여 함께 문화제를 진행했다. 청문회 직접 참관은 못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한진 동지들과 청문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올라온 것이다. 그런데 인터뷰에 앞서 만난 가대위의 한 동지는 ‘희망버스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정투위 동지들이 희망버스나 정치권 뒤에 숨으려 한다’며, 대리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엄마 손을 잡고 올라온 초등학교 아이는 비가 살짝 훑날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진 동지들을 보자마자 피케팅을 하겠다며 피켓을 찾기도 했다. 그래, 아이야. 니가 바로 희망이다.



더블딥 우려? 이미 자본주의 체제위기!

이민수

지난 8월 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있고 난 후 다시 '더블딥 우려'에 대한 기사들이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0년 중반에도 한 동안 떠들썩했다가 다시 잠복했었던 '더블딥 우려'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경기재침체라고 번역하는 더블딥(double dip)은 불황(또는 '경기침체')으로부터 짧은 회복기가 있은 뒤 곧바로 다시 불황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말한다.

통상 자본가들이 기대하는 대로라면 경기침체 끝에 회복기를 거쳐 호황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런 '정상적인' 순환이 작동하지 않고 잠시 회복되는 등 마는 등 하다



가 다시 불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보니 당혹스럽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막대한 천문학적 재정을 공황구제/불황타개를 위해 쏟아 부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전 불황/공황 때는 약발이 있었던 이 같은 경기부양책이 이번에는 전혀 듣지 않으니 말이다.

미약하고 짧은 회복

이는 2008년에 시작한 경제위기가 통상 7-10년마다 되풀이되는 순환적 위기(주기적 공황)를 넘어 다른 유형의 위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 위기는 세계자본주의 체제 위기이다. 이 위기 속에서 세계경제는 극심한 수축과 정체가 장기화하고, 그 사이에 간간이 짧고 미약한 회복기가 끼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1973년 이래 구조적인 과잉축적 위기를 부르주아지가 세계화 전략으로 돌파하려다가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마침내 2008년 금융공황으로 시작된 이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는 동일하게 역사적인 규모로의 자본 파괴에 의해, 그리고 세계

의 잉여가치 원천과 원료, 시장을 둘러싼 제국주의 간 세계 재분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위기이다. 우리 앞에 '아만이나 사회주의냐'를 제기하는 위기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자본가들이 '우려'해야 할 것은 더블딥 정도가 아니라 체제의 존망이다. '더블딥'이라는 자본가의 경제용어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이미 '우려'가 아니라 각종 경기지표 상의 하강을 보이고 있는 올해 2011년 2/4분기 이래로 '현실'이 되었다. 2009년 중반부터 세계 자본가들은 경기침체가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2010년 초반에 와서는 완전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면서 경기부양책을 거두어들일 '출구전략' 시점을 놓고 자기들 간에 행복한 논란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2010년 중반부터는 다시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어 하반기까지 계속 논쟁이 되다가 연말 즈음 들어갔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경기지표가 예상 을 넘는 하향세로 나타나자 다시 불거진 것이 다. 그만큼 불황으로부터의 회복이 미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통 이 ‘회복’이란 게 미 답지가 않아 이런 ‘더블딥 우려’가 끊이지 않 는 것이다.

체제위기와 경제회복

자본주의 체제 위기라고 해서 어떤 회복이 나 경기 호전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경기 분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충주의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경제회복은 모순되며 양립할 수 없다는 식의 교조적인 도식주의 적 입장은 맑스주의적 위기 분석과 아무 관계 도 없다. 이 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중심부 나라들에서 2009년 하반기부터 진행 된 1년여 동안의 이 짧은 회복기의 특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더블딥 이 왜 필연적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현 위기가 어떤 종류의 위기인지를 보다 명확히 드러 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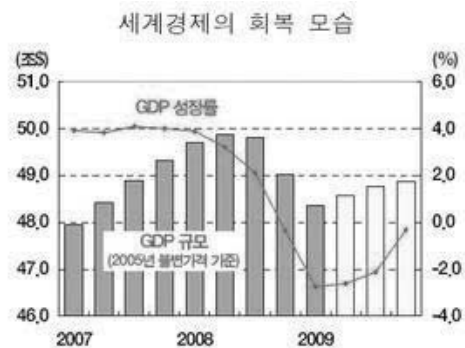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 모인 G20 ‘ 정상’들은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신문들은 경제회복에 대한 이야기 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전문가들

과 자본가들과 정치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 에 사로잡혀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경제회복 이 되고 있다면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이윤이 상승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위신이 회 복되어야 하는데 아직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회복이 미약하 고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

한편으론 경기지표들과 수치들로 볼 때 산 업 순환주기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상승 국면이 지평선 위에 떠오르고 있는 것으 로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회복이 더디 고 너무 완만할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인플 레와 함께 심지어 제2차 침체(즉 ‘더블딥’ 또 는 ‘W’자 형 불황)로 빠져들 강력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널려 있었다.

안정화 조짐들

2009년 4월 이래 체제의 안정화 기미들이 나타났는데 자본가들이 이로부터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다. 한 달 전인 2009년 3월에 경제수치들은 세계가 1930년대 이래 가장 동시에 최악의 침체에 들어갔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직후 4월과 7월 사이에 자본가들은 그들의 주식과 증권의 가치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8월-9월 초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실업률은 그 어느 것보다 경기변동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미국에서 2009년 첫 세 달 동안 월별 일자리 감소분은 평균 691,000 개였다. 그러나 8월에는 이것이 민간 부문에서 298,000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낮아졌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여 10%에 육박했지만 일자리 감소 속도는 완만해 지고 있었던 것이다.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장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6월부터 8월까지 실직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백만 명의 사람들, 또는 2009년 초부터 따지면, 거리로 내몰린 45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는 별로 반가운 소식도 아니다.

일자리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고 어렵פות이 회복의 조짐들이 나타난 것은 미국만이 아니었다. 2009년 여름에 부르주아 언론들은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이 모두 두 달 연속 GDP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불황에서 빠져나왔다”고 의기양양해 했다. 중국도 2006년 및 2007년 11-12%의 경제성장을 보였던 것이 2008년에 들어와 급격히 하강하면서 2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세계 공황의 타격으로 정리해고를 당했었는데, 2009년 9월에 인구 증가 대비 적정 GDP 수준인 8% 성장률로 복귀하였다.

위기가 계속되다

이런 회복 기미들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가들은 그들의 체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되찾는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불안해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가 전혀 잦아들고 있지 않다는 것, 회복을 다시 끌어내릴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전 세계 신용경색으로 은행들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모두 끊었다. 지급불능에 처한 은



행들에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천문학적 구제 금융 기금을 각국 정부들이 쏟아 부었는데도 여전히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대출 창구를 열지 않았다. 왜? 기업들이 매우 낮은 수익 실적을 보여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경기회복을 떠받치는 데 필요한 자본스톡이 극히 부족했다.



기업들이 지출을 감축하고 파산함에 따라 대량해고가 한 동안 지속했다. 미국 공식 실업률은 10% 아래였지만, 실망실업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각 10%와 16.5%에 육박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비할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식료품과 기타 소비재 판매는 계속 감소했다. 이것은 다시 경제에 부정적인 연쇄효과를 일으켜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0.8% 성장으로 불황에서 벗어났다고 보고된,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에서도 실업률은

2009년 9월에 5.7%에 달했고, 2008년 9월 이래 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내몰렸다.

국가부채가 치솟다

회복이 고통스럽고 느릴 것임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 있다. 공공재정의 위기이다. 경기하강은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오는 돈이 급감하고, 실업수당으로 더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은행들에 대한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으로 인해 각국 정부들이 엄청난 빚을 걸머지게 되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기금 또한 정부 부채를 더욱 늘렸다. 은행들이 악성 대출로 입은 손실을 어디서나 한결같이 정부들이 떠안았다. 그리고나서 이제 이 부채를 노동계급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데서도 정부들은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재정적자를 빌미로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출 삭감에 착수했다. 이런 식으로 수백, 수천



만 명의 사람들이 더욱 빈곤해짐에 따라 그들이 소비할 돈은 더욱 줄어들고 이것은 다시 침체 추세를 가중시켰다.

인플레이, 디플레이, 침체

반면 정부들이 이러한 복지 삭감과 긴축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혹은 노동자계급의 저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지될 경우 공공재정 위기는 통화 가치 하락을 강제할 것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해당 나라의 통화 투매가 벌어질 것이다. 채권시장, 즉 각국 정부들에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 금융자본가들은 삭감과 긴축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정부들한테는 인플레이를 일으켜 징벌을 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다. 만일 그들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심각하게 여겨 세금을 거두고 지출을 삭감하면 그들은 경제회복을 손상시키고 다시 경제를 스태그-디플레이션(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지하면, 채권시장은 정책결정자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솟구칠 것이고 채권금리가 급격히 치솟아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회복의 기미가 일단 뚜렷해지면 은행과 금융사들 주위에 어슬렁거리던 잉여 자금이 저평가된 자산들과 기업들을 포착해내서 우르르 달려들 것이다. 이것은 자산 가격을 다투어 올리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 훨씬 더 급격한 인플레이를 가져올 것이다. 2008년 이전 세계적으로 폭동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석유와 식량, 원자재 가격 급등을 재연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정부의 지출 삭감과 긴축정책이 노동자 민중들을 궁핍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지출 능력을 대거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

려 노동자 민중들을 궁핍화시키고 세계경제를 더 한층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다. 단명한 회복기가 끝난 2011년 현재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



세계경제 공황을 예견해서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

공황 - 정체 - 회복 - 호황 - 공황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는 약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산업 순환 패턴을 밟는다고 말했다. 하나의 순환은 공황으로 시작하여 정체, 회복, 호황 국면들을 거쳐 다시 공황으로 끝난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공황과 정체가 정상적인 발전으로부터 궤도 이탈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적인 것이며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으로부터 비롯하는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공황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다. 생산적 경제부문에서 투자에서 오는 수익성이 하락하면 자본가들은 온갖 형태의 금융상품 속으로 돈을 쏟아붓는다. 그러나 결국 은행과 금융업체들은 이윤율이 하락하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중지한다. 불황이 닥치면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과 금융상품들이 모두 허구적 가치로 드러나 버린다. 신용경색이 뒤따르고 증시가 곤두박질치며 은행들이 파산한다.

생산적 부문에서 수익성을 못 찾아 투자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과잉 자본의 존재를 맑스는 “자본의 과잉축적”이



라고 불렀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말하자면 공황이다. 이 잉여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다시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과잉자본의 파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행 및 기업 도산, 대량 정리해고, 대중의 궁핍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괴로 나타난다.

교훈

두 가지 교훈을 오늘의 경제위기로부터 끌어내야 한다. 첫 번째는 경제회복이 우리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다시 구해줄 것이므로 경제회복이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는 생



각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회복은 오더라도 미약하고 불안정할 것이며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강력한 회복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일자리와 임금과 복지와 생존권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만 올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경제위기가 정부의 나쁜 정책이나 은행과 금융업체들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

성 그 자체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체제는 바꿀 수 있다. 민주적으로 계획된 경제에 기반한 합리적 체제로 대체시킬 수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이 만든 위기를 전가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 저항을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혁명**



[유성지회 투쟁] 왜 패배했나?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구재보

‘밤엔 잠 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하고 주간연속 2교대 쟁취하자!’는 유성지회 91일간의 투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유성투쟁은 5월18일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공장 점거와 5월24일 공권력 투입, 그리고 조합원들의 현장복귀 선언 이후 계속된 용역깡패, 공권력에 맞선 투쟁 등 한진중공업지회 투쟁과 더불어 한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8월말까지 복귀 △복귀 명단 사측에서 결정 △200명 이상의 조합원 서약서 작성 등만 합의되었을 뿐 산처럼 쌓여있는 핵심적인 쟁점들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유성지회의 투쟁은 패배했다. 그러나 패배는 단지 유성지회만의 패배가 아니라, 09년 쌍용차투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우리 모두의 패배다. 패배의 이유는 곧 투쟁의 교훈이어야 한다. 유성지회의 투쟁은 주간연속2교대라는 계급적 요구를 내던져버리고 일괄복귀라는 당장의 눈앞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또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적인 요구조차도 자본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뼈를 깎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유성투쟁 과정에서 어떠한 패착이 있었고,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결과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귀하는 유성동지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어볼 것이다. 지면을 빌어 그동안 힘 있게 투쟁했던 유성지회 동지들에게 뜨거운 동지애를 가슴 깊이 전한다.



현장복귀 선언(기자회견)

유성지회의 처음 요구는 주간연속2교대 제 쟁취였다. 이것은 올해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2009년 노사가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합의사항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주간연속2교대의 문제는 가슴 깊이 절절하게 자기 요구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조합원들을 충분히게 조직하지 못했던 점, 자본의 직장폐쇄와 용역강패 투입이라는 난데없는 도발에 대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점거하고 대오를 강건하게 유지하면서 투쟁을 확대시켜 나갔다. 방송3사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앞 다투어 다루기 시작했고, 용역강패의 대포차를 이용한 뺑소니 사고는 유성투쟁과 주간연속2교대 문제를 쟁점화 시켰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임을 스스로 인식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와 지회는 6월14일 공장 앞에서 현장복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부



6월 14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터 유성지회의 요구는 '조합원 일괄복귀'로 쫓그라들었다. 용역강패의 폭력성과 공권력의 자본 편들기, 그리고 유성자본의 노동조합 무력화가 선전과 투쟁전술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 물론 지회는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면서 야간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실제 요구 및 투쟁에서는 '일괄복귀'로 모든 게 모아졌을 뿐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회의 일괄복귀 요구에 자본이 선별복귀로 맞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총자본 대 총노동의 전투를 피하고, 단지 '민주노조 사수' 명분 아래 조합원 추가 복귀를 막고 조직력을 유지하여 노동조합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노동자에게 법은 그저 활용되어야만 한다. 자본주의에서의 법은 언론, 경찰 등과 마찬가지로 단지 자본가의 이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강력한 투쟁 없이는 결코 순순히 노동자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투쟁이 장기화되고 승리의 전망이 희미해질수록 조합원들의 법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조합원들과 함께 승리의 전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으

로 법을 강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괄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선별복귀를 주장하는 자본에 대해 투쟁이 아닌 방식으로 일괄복귀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통해 직장폐쇄가 불법적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투쟁 대신 법적 판결에 대한 의존도가 기습깊이 자리 잡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가처분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원은 자본의 편임을 여지없이 증명해냈다.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도 된 듯이 노사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제시하는 조정안은 당연히 자본에 편에 선 것이었다. 여기에서 지회는 또 한 번의 한계를 드러냈다. 말도 안 되는 조정안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다.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면 많은 조합원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견어내고 ‘법에 의존하지 않겠다.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는 결기로 조합

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지회는 3차에 걸친 조정애 굴복했다.

〈조정사항〉

1. 채무자는 2011. 8. 31까지 채권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킨다

2.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는 채무자가 정한다. 다만, 채무자는 2011. 8. 19부터 채권자 전원내 대하여 노조사무실 및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 식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자들은 한꺼번에 30명까지 출입할 수 있고(아산, 영동 각 별도로 30명씩),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매일 13:30~14:30까지)에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위 출입 제한규정은 2011. 9.1부터는 효력이 없다.

3.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을 최초 복귀되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채무자는 2011. 8. 22까지는 최초 복귀를 시켜야 한다.

4. 위 각 사항은 채권자들 중 200명(비대위 및 노동조합 임원, 상집간부 포함) 이상이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2011. 8. 18까지 채무자에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내용 :

- 1)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 만약 채무자가 위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제1항 위반에 대하여 1일당 500만원, 제2항 단서 위반 부분에 대하여 1일당 50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 과정

투쟁 준비·돌입부터 마무리까지 투쟁 전 과정에서 그 어떤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은 바로 마무리 과정이다. 노사 간의 격돌에서 완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 마무리 합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실무적인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되고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면 자본은 제2의 공격을 감행한다. 어차피 노동조합을 와해시키지 못했다면 운신의 폭을 틀 속에 가두고 자본에 협조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공장 밖에서 투쟁했던 것보다 백배 천배 곤혹스럽고 굴욕스러운 탄압들이 자행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복귀 과정은 이후 자본의 공격에 맞서 현장투쟁을 자신감 있게 전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조합원 스스로가 최

선을 다한 투쟁이었는지, 비록 요구안은 쟁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투쟁 속에서 얼마나 계급적 의식을 깨달았는지, 노동자의 원칙과 자존심은 지켰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약서 = ‘기어 들어와라’

법원의 조정사항은 굴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현장복귀(일괄복귀) 선언 →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일괄(선별) 복귀 및 서약서 작성’. 이는 그동안 지회 투쟁의 당연한 결과다. 노사 교섭으로가 아닌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현장복귀를 하게 되는, 민주노조운동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조정사항 중 서약서 작성은 그동안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정당성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이다. 노사 간의 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노동자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했던 것이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다. 민주노조운동을 들먹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약서 작성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

난 투쟁이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체 조합원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사측이 마지막까지 버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하게도 채권자(가처분 신청인)는 지회이지 않은가. 그런데 왜 조합원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니다. 어떤 투쟁이라도 할라치면 서약서를 들이밀면서 불법을 운운하고 징계하려 들 것이다.

둘째, 복귀 과정과 현장투쟁에서 조합원 자신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 선 복귀자들의 ‘나는 개다’를 세 번 복창하게 한 것과 서약서 작성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조합주의를 뛰어넘는 전망으로 반격을 준비하자!

셋째, 복귀 이후 벌어질 현장투쟁에서 조합원들을 합법/불법의 틀에 가두면서 사사건건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불법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형사상의 불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

어찌됐든 91일간 한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유성지회의 투쟁이 비록 굴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락되었다.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라인 배치, 복수노조와의 마찰, 간부와 핵심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고소고발, 손해배상,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구속·수배자에 대한 문제, 사측에서 실시할 치욕적인 각종 교육,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주간 연속2교대 등등, 복귀 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처럼 높다. 자본과 해결해야 할 문제뿐만 아니라 패배감 극복, 지도력 구축 및 조직력 회복·강화 등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역



시 산적해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결코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으며 따로따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첫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91일간의 투쟁 과정, 아니 지난 유성지회의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간부들만이 아니라 간부와 조합원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투쟁을 패배하게 했는지를 조합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계급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전투적)조합주의를 뛰어넘고 노동해방(사회주의 건설) 전망을 만들어나가자.

둘째, 차기 지도력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지도력을 세워내고 차별하게 사측의 탄압에 대응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패배감을 극복시키는가 하면 자신감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하자.

셋째, 현장 조직력을 회복·확대해야 한다. 부서별 간담회, 수련회 등을 통해 미복귀 농성 미참여 조합원과 선복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미안함 대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자신감과 결의를 심어주자. 또 조직력 회복·확대는 단순히 간담회와 수련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

라도 치열한 현장 투쟁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자.

넷째, 연대투쟁에 더욱더 헌신해야 한다. 상집, 대의원 수준에서 진행하던 연대투쟁을 조합원까지 확대하자. 그동안 유성투쟁에 연대해왔던 전국의 동지들에게 동지애가 가득 담긴 인사와 함께 우리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냄을 통해서 야간노동 철폐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제기해나가자.

혁명



• • • • • 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양재훈



● ● ● ● ● ● ● ● ● ● ● ● ● ● ● 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몽기의 전체적 성격이 그 동맹세력(여기서는 서방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결정되는가?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반군 편에 서서 개입했다 고 해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에 반대 해야 하는가?

관되게 투쟁했던 것은 바로 혁명적 사회주의 자들이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랜드 앤드 프리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반란 내에서 혁명을 위해 싸워야 한다

답은 당연히 ‘아니오’이다. 1980년 폴란드 에서 노동자 반란이 오로지 레흐 바웬사의 친 제국주의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되지도 않았

물론 나토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

유를 가지고서 반군을 지원했다. 미국과 EU는 올 초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타도로 펼쳐 일어난 대중봉기에 직면하여 위선적이고 얼버무리는 기만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실추되어버린 권위와 아랍 세



고, 미국 레이건의 연대노동운동(솔리다르노시치) 지원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았다. 지도부나 동맹세력의 성격 같은 왜곡 및 굴절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이 위대한 노동자운동을 지지했다. 한편 스페인내전을 예로 들어보자. 당시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정부와 파시스트 프랑코 세력 사이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언제 중립을 취했던가? 한편으로 프랑코의 공격에 맞서 공화정부를 방어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혁명의 전진을 위해 일

계의 지지를 되찾기 위해 리비아에서는 서둘러 반군을 지원했다.

지금 벵가지에 있는 국가과도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볼 때 반군 지도부의 주류가 제국주의 다국적기업들에게 경제의 많은 부분을 군사 지원 및 합법정부 승인의 대가로 넘겨주려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도부 내 이슬람주의에 뿌리를 둔 다른 분파는 이슬람을



법 샤리아를 헌법체계 속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맞선 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하며, 혁명적 수단에 의해 국가과도위원회를 몰아내야 한다. 혁명을 만든 전투 일선의 반군 전사들과 해방된 도시들의 민주주의투쟁 세력들의 존재가 지도부나 제국주의 때문에 지워지거나 무시될 순 없다. 반군 지도부의 범죄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 때문에 리비아혁명이 맛이 갔다고 단념해버린다면 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반란 내에서 혁명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일관된 민주주의와 국제주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레닌과 함께 러시아혁명을 이끈 레온 트로츠키는 1938년에 지금 리비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놓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프랑스령 알제리 식민지에서 민족독립의 기치 아래 반란이 내일 일어나고, 여기에 이탈리아 정부가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이끌려 식민지 반군에게 무기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나는 파시스트 제국주의[당시 이탈리아 제국주의]가 식민지 반군 편에 서서, 민주주의 제국주의[당시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반란에 개입하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취해 보았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알제리 반군에 보내는 무기 선적을 막아야 하는가? 초좌익주의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혁명주의자라면 이탈리아 노동자들 및 알제리 반군과 더불어 이 같은 대답에 대해 분개하며 고개를 돌릴 것

이다. 설사 파시스트 이탈리아에서 같은 시점에 해상 총파업이 발발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파업노동자들은 반란에 나선 식민지 노예들에 대한 원조 물자를 실어 나르는 선박들을 위해서 파업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주의자가 아니라 비겁한 조합주의자에 불과할 것이다.”

지도부의 반동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리비아 반군에게 무기와 물자를 보내고 싶어 한다면 의당 리비아 반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을 받아야 하며, 미국 프랑스 영국의 노동자들은 이를 막지 않는다. 지도부의 반동적 성격을 들어, 또는 리비아가 필연적으로 친 제국주의 종속국이 될 거라고 예측하여 무기와 물자 수송에 반대하는 좌파들은 최악의 비관주의자들이다.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 수천 명의 반군 전사들이 무장하고 있고 민주적 토론의 공간이 존재하는 한 건강한 혁명적 결말로 나아갈 희망은 아직 충분히



● ● ● ● ● ● ● ● ● ● ● ● 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있다. 카다피 아래서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잔혹한 독재와 테러가 있었을 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제국주의에 반대하지만, 그러나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지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들의 싸움이 대부분 그들 자신의 인민들에 대항하는 싸움일 경우에 특히 진실이다. 카다피 정권은 무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선 인민들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전제주의적 독재였다.

반군에 대한 제국주의의 지원은 이 지원이 혁명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제국주의적 침략/점령/병합으로 전화시키지 못하는 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카다피와의 투쟁과 전투는 압도

적으로 시민군 전사들이 수행했다. 반군 전사들을 따라 종군한 모든 기자들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국가과도위원회가 친제국주의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국가과도위원회의 직접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수많은 지역위원회들과 시민군 전투단위들이 존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며, 이 혁명이 전진하도록 추동하고 이 혁명을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연속혁명으로 나아가도록 투쟁해야 한다. **역명**



리비아혁명과 제국주의

이제 문제는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이다. 뱅가지의 국가과도 위원회(NTC)를 지원하고 있는 나토 제국주의 세력들은 민중혁명의 과실을 도둑질해 가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 세력들은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넘어온 각료들과 군 장성, 경찰 및 정보기관의 고위급들로 구성된 친서방 정부를 들어앉히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로부터 리비아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혁명의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리비아혁명이 내전을 거쳐 승리함으로써 다시 아랍혁명은 지난 4, 5개월간의 좌절과 교착상태를 뚫고 되살아날 것이다. 그 동안 영웅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은 시리아의 민중들도 리비아혁명의 승리로 크게 고무될 것이다. 지난 몇 달 만에 수천 명을 학살한 아사드 파쇼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시리아에서 활활 타오를 것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만 왕정체제들에서도 다시 반란이 촉발되고,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봉기)도 여기에 고무 받을 것이다. 이집트와 튀니지의 운동도 새로운 동력을 얻어 군부정권에 맞선 투쟁을 가일층 전

진시킬 것이다.

리비아혁명의 상대적 선진성

한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리비아혁명은 이집트혁명이나 튀니지혁명에 비해 더 선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존 군대가 와해되고 거의 해체된 상태에서 수천 명의 민중들이 전투기술을 습득했고 비정규군사단위로 조직되어 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업 군인이 아니다. 주로 건설노동자들과 청년실업자들이다. 애초 민중혁명이 내전으로 번진 것은 카다피의 광폭한 학살 때문이었지, 이슬람 무장세력 같은 군사집단이 있어서 이집트, 튀니지와는 다르게 내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한편 이집트와 튀니지와는 달리 나토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개입이 내전 승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장은 리비아의 대중들 사이에 이들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환상이 깊게 퍼



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좌클릭?

남궁 원

오세훈의 '악어 눈물'과 여·야당의 복지 경쟁

오세훈 서울 시장은 '애들 밥 못주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정면 비판한다. 이 가련한 모습을 보인 오세훈의 정치노선은 무엇일까? 지난 6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선언 폐기촉구 및 대(對)한나라당 최후통첩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장은 한나라당 복지 포퓰리즘과 좌편향 정책 성토자리였다. 이 행사 주관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다. 이들은 '구걸정당' 한나라당을 비판하면서 선명한 '보수우파 자유 이념' 창당을 주장하면서, 보수 애국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오세훈의 '악어 눈물'은 바로 보수우파 정치 이념의 생리현상이다.

반면, 한나라당 보수좌파는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우파를 뛰어넘어, 유권자의 불만을 읽



오세훈 서울 시장의 '눈물'은 보수우파 정치 이념의 생리현상이다. 최근 보수우파 뉴라이트연합, 국민행동본부를 중심으로 독자 창당 목소리가 거세다.

어내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한나라당 대권주자 박근혜 전 대표는 '생활형 맞춤형 복지' 정치 상품을 기획해냈다. 한나라당 당대표에 출마한 친박 인사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쓰면서 복지예산에 인색한 인상을 주는 보수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다. 민주당 또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을 내세우며, 20조원의 재정방안을 내놓았다.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은 55조 규모의 복지 재정 확충 방안



반이명박 전선 이룸하에 야당세력과 연대를 통한 시혜적 복지, 노동자 계급 단결투쟁에 해악적이다. 부르주아 선거정치에 종속된다.

을, 진보신당은 총 59조원에 달하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바야흐로 보수 좌파, 야당, 진보정당간의 복지 경쟁이다.

공생 발전의 정체

한국 자본주의를 이끄는 수장답게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신년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면서 재정긴축을 주장한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거시적인 해법, 즉 새로운 시장 경제, 국가 발전 모델인 ‘공생(共生) 발전 자본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집권 초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이 가세해서, 공동 전선을 친다. 지난 8월1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열린 공청회에서 ‘전경련 해체론’

까지 언급하면서 ‘재벌개혁’을 경제단체장들에게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시장의 역할이 갈수록 커진 자본주의 3.0 시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를 마감하고, 자본주의 4.0 시대 (따뜻한 자본주의)”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장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 재벌의 ‘따뜻한’ 개입을 주장한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재벌개혁 정치 공세에 대해, 재벌은 과거처럼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때 보여주었던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면서 즉각적인 반발을 하지 않고 있다. 벌써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 약법을 제정한 노무현 정부시절 복지 지출 증가액은 10%다. 이명박 정부는 <201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면서, 복지 지출 증가액을 6.9%로 잡았다. 복지 지출 증가액이 30%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재벌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 발전’, ‘자본책임’은 정치 ‘쌍 쇼’에 불과하다.

복지 대 반(反)복지 논쟁의 허구

한국 사회 복지 담론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대 반(反)복지 논쟁, 복지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분명하게 빈곤 확대, 물가 폭등, 실업·대학 등록금 문제, 사회 불평등 심

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이데올로기'인 박형준 청와대 특보는 인터뷰를 통해, "자본주의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이 필요한 때"라면서, "승자 독식·무한 경쟁의 신자

유주의도, 재정을 계속 투입해 빈곤문제를 해소하려는 복지국가 시스템도 현재 양극화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조선일보, 2011년 8월16일자)

미국 자본주의 쇠퇴, 자본주의 경제위기 심화와 유럽, 아랍지역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을 보면서, 지배계급의 고뇌에 찬(?) 자본주의 정세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진퇴양난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생발전', '새로운 시장경제'라는 이데올로기로 정면 돌파를 꾀한다. 건축재정과 친재별 시장 정책을 계속 강화한다. 최근에는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하자, IT 산업 위기 운운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삼성재벌을 도와주고 있다.

반면, 선명한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표현되는 시장 만능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이제 정부(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틀에서 보면, 야당과 진보정당의 '복지국가' 주장이 그렇다. 민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한계 부딪힌 50년 한강의 기적... 다같이 행복한 성장으로 가야

1.0 자유방임 고전자본주의
2.0 정부주도 수정자본주의
3.0 시장주도 복지자유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

“대기업들 좋은 실적은 중순·서민들 뺏은 것” 62%	한국은 현대사의 우등생이다. 세계 최빈국으로 현대사(現代史)의 문을 열고 들어와, 21세기의 문턱을 넘은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現) 지구적으로 확산된 무한경쟁에서 단란한 패자(敗者)가 우리 사회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중소기업·빈민 등 각 분야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소수의 승자(勝者)에게 과실(過失)이 돌릴대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식도 큰 비판을 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가. 자본주의는 내후적인 도전을 스스로 사유하면서 성장해왔다. 새로운 도전 역시 수정과 변동을 거쳐 들고 나가는 법이다. 주제는 자본주의의 키(Key) 플레이어, 시장과 기업이 되어 할 것이다. 기업이 승자독식의 먹이사슬을 끊고, 키 높은 임금수에서부터 비리의 이빨까지 모두 채 어갈을 하는 공생(共生)의 숲처럼 새로운 자본주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들고 나갈 '자본주의 4.0'을 모색해본다.
--------------------------------------	---	---

시리즈 A4-5번

최근 조선일보조차도 자본주의 4.0 시대를 말하면서, 시혜적 복지를 말하고 있다.

주당 정동영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부자 증세' 추진을 제안하면서 '복지동맹의 교감'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는 현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해법을 놓고, 보수우파는 정부 개입의 오류 결과로, 중도/ 진보파는 정부 개입이 부족했던 결과로 인식하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 자율에 맡기느냐(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시장경제론),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느냐(야당과 진보정당의 복지국가론)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구도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특성, 즉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작동하는 '노동 착취 체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유포시킨다. 또한 국가의 성격, 노동자들이 화해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으로 보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복지 대 반복지 구도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속에서, 노동자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저들에 맞선 우리들의 복지투쟁은

자본주의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빈부격차가 증대하는 이 시점에, 전체 인민의 복지문제는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최저임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약자 보장 조치, 불안전 노동에서 완전 고용 추구 등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삶'이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자본주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인민의 복지를 어떻게 쟁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복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가다. 따라서 복지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노동자계급은 이명박 정부, 재벌, 자본가와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문제는 노동운동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구 유럽 역사에서 복지는 계급투쟁의 산물이었다. 지금처럼 반이명박 전선 이름하에 야당세력과 연대를 통한 시혜적 복지는, 노동자 계급 단결투쟁에 해악적이다. 부르주아 선거정치에 종속된다.

그렇다면 당장 인민의 복지를 위한 정세적 실천 투쟁은 무엇인가?

현재 15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은 2007년 114조원에서, 2011년에는 약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200조원은 금융화를 통해서 투기화 될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

용불안정성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재벌의 사내 유보금을 인민의 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투쟁, 투기화된 금융기관을 노동자가 직접 통제하고 규제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혁명**

● ● ● ● ●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김병효

8월 7일 토요일 경찰서 항의시위로 촉발된 토튼햄 폭동은 며칠 사이 런던 북부, 북동부 도심으로 확대되다가 맨체스터, 셸포드, 노팅엄 등 인근 도시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소위 '폭동'이라 불리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 모았다. 영국 정부와 경찰은 이런 이유로 이번 폭동이 사회경제적인 문제와는 무관

한 일탈행위로 규정하고자 했다. 언론에서도 약탈이나 폭력적인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폭동에 참가한 구성원들이 다양하다고 해서 이번 폭동의 주요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벌어진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로 이번 폭동 역시 하층 계급 사람들이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계급의 젊은 층들이 이번 폭동의 주역이다. 이 청년들은 20%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흑인은 50%에 이른다.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으로 힘겨운 상황이다. 게다가 주택문제도 심각하며, 공공지출 감소로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 ● ● ● ●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고 말했다.

벌거벗은 자본주의, 도덕의 외피를 두르다.

정부와 경찰은 이런 분석을 외면한 채 폭동 초기부터 신속하게 이번 폭동을 단순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 버렸다. 영국 캐머론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감 부족, 부모의 보살핌과 훈육 부족, 윤리와 도덕의식 부족 등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심판자의 위치를 자처하고 있다. 이는 이번 폭동이 정부의 긴축정책이나 만연한 실업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BBC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국 언론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테일리 메일>은 이번 사태를 “허무주의적이고 야만적인 10대 청소년들의 난동”으로 치부했다.

이번 폭동을 인종적 문제로 몰아가는 흐

름도 존재한다. 극우 파시스트 정당인 EDL(영국수호동맹)은 엘섬 지역에서 (백인의) 영국을 지키겠다면서 거리로 나섰다, 앤필드에서는 ‘앤필드수호동맹’이라고 쓰여진 흰색 셔츠를 입은 채 우익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흑인 청소년들의 범죄적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폭동의 원인을 인종적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빛나기도 한참 빛나간 것이다. 실제로 흑인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흑인 청소년들이 런던의 소외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일 뿐이다. 많은 폭동이 흑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지 흑인들이 소외된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줄 따름이다.

자본론 강의로 유명한 데이비드 하비는 최근 글을 통해 영국 언론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1871년 파리코뮌의 기억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야만이라는 단어는 1871년 코뮌 투사들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코뮌 투사들은 야수, 하이어나 등으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신성함과 도덕, 종교, 그리고 가족의 이름으로 즉결처형 당했다.”

캐머론 총리가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과 동일하지 않은



극우 파시스트 정당인 EDL(영국수호동맹)의 집회



진입하고 있는 영국 경찰

가? 비행청소년들의 도덕과 윤리, 시민의식
실종, 가족 가치의 해체에 훈육의 부족 등등
을 원인이랍시고 이야기하고, 그 대안으로 시
내에 16,000 명에 이르는 경찰을 배치하고,
수천 명의 시위진압경찰 훈련을 계획으로 제
출하고 있다. 미국 방식대로 선제적인 체포와
발포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소요 발생 시 통
행금지 방안도 준비 중이다. 물대포와 최루
가스, 그리고 고무탄 사용은 이미 허가되었
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이번 폭
동 확대에 기여했다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
겠다는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극우 세력들은
2005년 프랑스 방리유자르 때와 마찬가지로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도대체 과
연 무엇이 야만적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봐도 문제는 마
찬가지다. 우리의 자본주의적 일상은 훨씬 더
‘야만적’이다. 야만적인 정치인들은 각종 위
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에서 위장전입, 병역, 투기, 탈세 문제 등등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다. 민중들의 지갑을 터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은행들은 그 얼마나 야만
적인가. 4대강 사업, 한강 르네상스 등으로 막
대한 재정지출이 벌어지고 그 단물을 일부 세
력들이 독식하고 있다. 각종 컨설팅업체들과
투기자본들도 민자 고속도로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 자산을 약탈하는 데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IT 강국 운
운하며 역시나 가계에 엄청난 통신비용을 부
담시켜 초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폭력성도

● ● ● ● ●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마찬가지다. 용산, 포이동 마리 등 철거 지역에서는 공권력의 비호 아래 용역깡패들이 공공연하게 폭력을 행사한다. 유성, 한진, 현자 비정규직 등 노동자 투쟁에서도 이러한 폭력이 더 이상 낮설지 않다. 희망 버스를 가로막은 어버이연합을 보면 우익 테러도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이런 예들은 사실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정치인들과 자본의 이런 야만적 행태와 이번 영국 폭동이 구별되는 점은, 이번 폭동이 좀 더 공공연하고 거리에서 이뤄졌다는 점 정도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 폭동에서 있었던 약탈이나 폭력행위는 앞서 열거한 정치인들이나 자본가들의 행위와 별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굳이 이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야만적 행동을 몸소 행했을 뿐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모종의 '야만적' 행동이라기보다 벌거벗은 자본주의의 본 모습이다. 캐머론 총리와 영국 언론들이 재빠르게 도덕과 윤리를 들이민 것도 바로 이 벌거벗은 자본주의를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 얼마나 꼴사나운 짓인가. 실제로 캐머론 총리의 언론 조작은 초기에 상당히 성공적인 듯 보였다. 폭동 초기에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폭동



캐머론 총리와 영국 언론들이 재빠르게 도덕과 윤리를 들이민 것도 바로 이 벌거벗은 자본주의를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가담자들의 가족에 대한 복지 수당 및 주택 지원을 중단하라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물론 폭동이 잠잠해지고,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런 흐름은 일주도 안 되서 싹 사라져버렸다.

혁명으로의 진화 가능성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거리로 나온 많은 군중들은 정부와, 정부의 긴축정책, 그리고 폭력적인 경찰, 부자들에게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명확한 목표나 전술의 부재 속에서 무차별적인 대상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데 실패하면서 약탈자들이 끼어드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

- ● ● ● ●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해야 한다. 진짜 약탈자는 바로 은행과 자본가 그리고 현 보수-자민 연립정부다. 바로 이들을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소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을 멈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착취와 억압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이다. 현 경제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인 젊은 층들은 혁명적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경찰과 부자들을 향한 대담한 행동에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긴축과 자본의 위기 전가 공격에 맞서 혁명적인 젊은 층을 노동자 계급으로 묶어세우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역명



2009년 긴축재정 정책에 맞서 시위에 나선 영국 노동자들

계급의식,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

오세철

1. 여는 말

하나.

80년 광주 항쟁 이후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폭넓은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올바른 만남에 주목하고, 특히 그 가운데 프로이트의 한계를 넘어서서 맑스주의와 변증법적 통합을 시도하고 나름대로 혁명적 실천을 한 빌헬름 라이히를 만나게 되었다. 1983년 「현상과 인식」 봄 호에 「빌헬름 라이히의 사회사상과 정신의학의 비판이론」이라는 글을 실었다. 그 후 1986년 그의 가장 유명한 책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우리말로 옮겨 출간했다.

그 당시 여러 곳에서 맑스주의, 사회심리

학, 혁명 사이의 관계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그 당시 운동권은 나를 맑스주의 또는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강단 사회심리학자로 비웃었다. 나는 아직도 맑스주의자로 자처하며 공산주의를 향한 혁명적 실천에 함께하고 있으며, 「맑스주의 심리학」이라는 부제를 단 사회심리학 과목을 맑스주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들.

좌익 공산주의 혁명그룹의 하나인 「국제공산주의흐름」이 펴내는 이론지 「국제평론」에서는 「과학과 맑스주의 운동」이라는 특집을 2009년부터 연재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찰스 다윈 특집을 다루면서 안톤 판네쿵의 「다윈주의와 맑스주의」를 포함시켰다. 2010

* 이 글은 맑스코뮤날레 (2011년6월)에서 사회실천연구소가 「역사와 계급의식」이란 주제로 공동 발표한 글 중의 하나이다. 이론적인 글이지만 첫 회를 싣고 계속 연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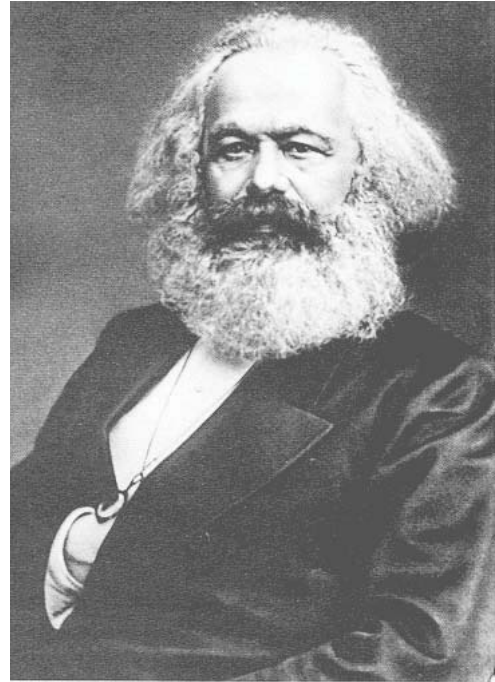
년 140호에서는 「프로이트의 유산」이라는 글을 실었다. 140호까지 나오는 동안 정신분석학을 전혀 다루지 않던 정통 맑스주의 혁명 그룹의 변화이다.

이제야 우리는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 혁명당, 그리고 계급의식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 구체적 실천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

2. 맑스주의 올바로 세우기

아직도 맑스주의 내부에서는 “청년 맑스”와 “장년 맑스”, “주체주의적 입장”과 “객관주의적 입장”, “기계론”과 “자율론”의 허구적이며 피상적 대립이 끈질기게 버티고 있고, 공산주의 실천의 역사, 보기를 들어 제1, 2, 3인터내셔널의 역사도 혁명 전략과 전술의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맑스에 대한 편향된 독해와 이해에서 비롯되었고, 맑스의 저작에서 취사선택한 강조점의 차이이기도 하다. 맑스 역시 그가 살았던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역사적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공산주의 혁명의 예견에 대한 성급함도 있었지만, 그것은 역사에 대한 총체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이론적으로 형성해 온 과정이었다. 특히 그것은 늦게 알려져 출간된 「요강」(Grundrisse)



맑스주의 올바로 세우기는 총체성을 획득하는 맑스주의 방법론으로 나아가야 하며, 계급의식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으로 증명되었다. 보기를 들어 정치경제 분석과 의식의 통합은 「자본」의 수고를 모은 「요강」에 잘 드러나 있다.

젊고 “미성숙한” 맑스가 소외를 말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본 1권에서 장년의 맑스의 「물신성」으로 발전한다. 그는 생산관계의 실현은 상품경제의 내부구조에서 나오고 물신성은 사회의식의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존재의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맑스 저작은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 1844년 「경제학 철학수고」는 공산주의가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 하면서, 내용에서 헤겔을 비판한다. 하지만 개념은 헤겔에서 빌려오고 있다. 1855년 「포이에르바흐에 대한 테제」는 오히려 역사

밖에서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인간 본질을 비판하면서 사회관계 총체로서 현실을 말한다. 물론 그 사이 맑스는 1845-46년, 「독일 이데올로기」와 1847년 「철학의 빈곤」에서 인간을 보다 구체적 의미로 사용하여 구체적 인간 활동과 창조적 활동의 세계로 사물의 세계를 사고한다.

우리는 맑스주의 올바른 세우기에서 다시 한 번 총체성을 획득하는 맑스주의 방법론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계급의식」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두 가지 흐름, 하나는 「물상화」의 이론적 발전을 통한 계급의식 획득과 혁명의 가능성으로, 다른 하나는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만남을 통한 계급무의식과 혁명의 가능성으로 살펴본다.

3. 물상화, 계급의식 그리고 혁명

맑스의 비판이론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관계가 도치되어 사물 관계로 “교란”되거나, “변태적” 형식의 가치에 기반한 문명과 생산양식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교란된 형식”을 재생산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추상노동이다. 게오르크 루카치는 「역사와 계급의식」

(1923) “물상화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장에서 이러한 상품물신성이 결합되어 가치형식의 효과가 사회를 장악하는 상품 물신성 이론을 발전시켰다. 맑스의 방대한 “경제적” 수고가 출간되기 전에, 루카치의 업적을 통한 이론적 돌파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더더욱 높은 수준에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과 같이 물상화의 구조는 인간의 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더 운명적으로, 더 결정적으로 가라앉는다.”¹⁾

그러나 루카치는 주체이며 객체인 프롤레타리아트가 물상화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에게는 부르주아지의 의식이 사회적 상황의 즉시성만 이해할 수 있는 자본에 의해 부과된 물상화된 형식 안에 갇혀 있는 반면, 노동자는 상품으로서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상품 안에서 노동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자본과의 관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²⁾

요약하면 루카치에게 노동자가 예속된 물상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을 위한 탈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이 노동

1) Georg Lukacs,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Studies in Marxist Dialectic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71, 93쪽

2) 윗 책, 168쪽

과정 자체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물상화된 의식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루카치의 당위론적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존재의 변증법적 본질을 깨닫게 되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인 반면, 부르주아지는 일상생활이 역사적 과정의 변증법적 구조를 감추기 위해 물상화의 추상적 범주를 사용한다...”³⁾



루카치는 “노동자가 예측된 물상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을 위한 탈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이 노동과정 자체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물상화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존재의 변증법적 본질을 깨달을 “필

요성”이 어떻게 프롤레타리아트가 물상화의 효과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루카치가 이 글을 쓴 지 1세기가 된 지금 어떻게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의 물상화 경향을 극복하고 실천을 통해 상품물신성의 시슬을 끊어낼 수 있는지는 맑스주의가 부딪히고 있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의 기초는 루카치 시대에 대부분 출간되지 않은 「자본」의 1861-63 수고인 「요강」에 있다.⁴⁾ 그리고 “생산의 직접과정의 결과”와 「자본」의 독일어 초판(1867)의 1장과 부록(상품의 이중 본질(추상 가치와 사용가치)과 그를 생산하는 노동(추상 노동과 구체노동))에 있다.

이러한 쟁점은 가치형식 이론가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교화되었다. 아페는 루카치의 주장에 직접 도전한다.

“결정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 족쇄는 상품 형식 밖에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물상화된 사회에서는 자율적이고 의식적인 주체는 있을 수 없다. ... 가치는 생산의 형식으로 존재하는데 제한되지 않는다. 가치는 의식의 형식이다. 그것은 칸트의 의미로 선험적 형식이다. 주체가 의식하지 않는 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가치에 의해 형성된 주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원하고 행하는 것은 항상 상품, 화폐,

3) 윗 책, 164-5쪽

4) 잉여가치론이 포함됨

국가권력, (법적) 권리의 형식 아래에서 보이기 때문이다.”⁵⁾

야페의 분석에서 분명한 것은 루카치와 반대로 외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스스로” 자본주의에 존재론적으로 반대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포함한 주체는 없다. 그러나 그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물상화된 의식의 영향력에 대한 루카치의 주장에 강력한 도전을 하지만, 그 또한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사회형식의 전복에 필요한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즉 물상화된 사회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노동계급을 제외시키지 않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상품물신성은 신비화, 허위의식,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 그리고 당을 통해 찢어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존재의 국면, 즉 현실적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다.

야페와 비슷하게 포스톤도 임노동, 임노동계급, 그리고 계급투쟁이 자본주의 역사적 발전의 추동력임을 말하지만 그 투쟁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행동양식이기보다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본다.⁶⁾ 두 사람은 자본 자체도 “자동적 주체”라고 보고 임노동과 노동계급 모두 자본을 구성하며 그 안에 갇힌다

고 본다.

그들에게 계급투쟁은 자본주의 사회관계 내에서 구체적인 경제, 정치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와 수정을 가져오지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퇴로가 없는 자본주의의 궤적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학파, 특히 아도르노의 분석과 같은 “패배주의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맑스의 예측과 반대로 계급양극화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부정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호르크하이머가 종교로, 아도르노가 미학에 눈을 돌림으로써 계급의식 이론을 포기했으며 혁명적 맑스주의에서 우울한 베버 좌파로 이동했다. 이와 같은 좌파 비관론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 물상화가 총체적이라면 비판도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가 기계와 기술에 종속되어 생산과정이 시공간으로 분열될 수 밖에 없다는 군터 앤더스의 입장과 유사하다.⁷⁾ 이와 같은 비관론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현대 자본주의 노동과정 내에서 이를 깨뜨릴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야페나 포스톤 같은 가치형식 이론의 비관론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불가능성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비자본주의의 미래(공

5) Anselm Jappe, 「Les Aventures de la marchandise: Pour une nouvelle critique de la valeur」, Denoel, 2003, 170쪽

6) Moishe Poston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19와 371쪽

7) Günther Anders는 「The Obsolescence of Man」에서 인간주체에 대한 자본주의 산업과 기술의 영향력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부정한 프랑크푸르트 학파 아도르노는 미학에 눈을 돌림으로써 계급의식 이론을 포기했으며 혁명적 맑스주의에서 우울한 베퍼 좌파로 이동했다. 이와 같은 좌파 비판론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산주의)의 사회적 대표(주체)라는 입장을 부정하는 데 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가치의 원천으로만 보고 물질적 부의 원천으로 보지 않는다. 맑스는 전체 역사의 시기 동안 가치형식은 그 소외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부의 엄청난 발전을 위한 조건임을 보았고 자본의 궤적은 가치증식과정과 실질적 부의 확장 사이의 모순을 필연화한다고 보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비관론적 입장을 지닌 야페나 포스톤과는 반대로 인간행동과 노동에 초점을 맞춘 가치형식 이론가들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중 본펠드는 “노동은 자본주의의 변태적 세계의 형식 자체에 맞서며 존재하는 “구성하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자본은 스스

로 자기증식하지 않고 집합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주장한다.⁸⁾ 라이헬트는 가치와 사용가치의 상품의 이중 본질이 노동의 이중성격에 상응하는데 사용가치가 구체노동의 객관화라면 가치는 추상노동의 구체화라고 본다. 맑스의 「자본」(1권) 독일어 초판에서 보인바와 같이 그것은 “상품에 잠재된 노동의 두 가지 다른 유형을 의미하지 않고, 동일한 노동이 상품의 사용가치에 관련되는가 아니면 단순히 객관적인 표현으로서 상품가치에 관련되는가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 모순적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여기서 어떻게 노동이 자본관계와 가치형식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가의 문제는 맑스 이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다. 계급의식과 자본주의에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노동의 생산력이 자본 안에 갇힌 물상화된 양식을 흔드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인간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나 철학적 인류학의 문제도 아니고 존재론적 문제도 아니다. 라이헬트에게 인간의 본질은 개인과 유적존재의 통일이며 혁명적 실천을 통해 철폐되어야 하는 전도된 형식일 뿐이다.¹⁰⁾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실천 그리고 집합노

8) Werner Bonefeld, “Capital as subject and the Existence of Labour” in 「Open Marxism, Volume III, Emancipating Marx」, eds. by w. Bonefeld, R. Gunn, J. Holloway and K. Psychopedis, Pluto Press, 1995, 184쪽 외 여러 곳

9) Helmut Reichelt, 「Value: Studies by Marx」, New Park Publishers, 1976, 16쪽

10) Helmut Reichelt, “Social Reality as Appearance: Some Notes on Marx’s Conception of Reality” in 「Human Dignity: Social Autonomy and the Critique of Capitalism」, Ashgate, 2005, 38쪽

동자의 실천의 요소를 바라보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가치증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부”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실질적 부의 성장은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 요소는 축적 과정에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그를 파괴하는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살아있는 노동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 오직 자율적인 것은 노동력에 있다. … 자본이 노동 안에 그리고 노동을 통해 존재하지만 노동은 자본 안에 그리고 자본에 대항하여 존재한다. … 노동의 사회적 실천은 자본에 대항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존재의 계기이기도 하다.”¹¹⁾

여기서 우리는 노동이 단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형식을 만드는 불꽃”이라는 강력한 주장¹²⁾을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가치 증식과 실질적 부의 증진의 모순 속에서 가치형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형식,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이루어내는 노동의 실천은 단순한 비관론과 낙관론을 넘어서는 맑스주의자의 입장이다.

이제는 가치형식이론 진영 안에서의 논쟁이 맑스에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현존

하는 혁명 세력이 이 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계급의식과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혁명 조직 내에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좌익 공산주의 그룹 중의 하나인 「국제공산주의흐름(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의 입장을 보기로 든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힘과 실천은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의 사상에 종속된 채 남아있는 한 휴면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잠재력을 효과적인 위력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계급의식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의 계급을, 즉 자본에 의해 착취되는 특정한 계급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들의 투쟁을 통해서 경제 체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적들과 그 동맹들이 발견할 그 사회를 알게 된다.”¹³⁾

“계급의식이 본질적으로 계급의 경험의 산물이자 실천적 투쟁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진실로 계급전체의 행동이 대체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혁명의식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해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자신의 일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단순히, 프롤레타리아트가 생산과정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의식할 때,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복잡성과 야만성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⁴⁾

11) Werner Bonefeld, “Human Practice and Perversion: Beyond Autonomy and Structure” in 「Revolutionary writing: Common Sense Essays in Post-Political Politics」, Autonomedia, 2003, 78쪽

12) Karl Marx, 「Grundrisse」, Penguin Books, 1973, 361쪽

13) 국제공산주의흐름, 빛나는 전망 편집부 옮김, 「공산주의조직과 계급의식」, 209, 62쪽

14) 윗 책, 64-65쪽

“공산주의 의식은 신비스런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의식과 행동은 혁명 강령과 혁명 조직 없이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필요성은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 의식의 본질에 의해 부과된다. 만약 공산주의 혁명과 사회의 변혁을 이뤄내려 한다면,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역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적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¹⁵⁾

위에 인용한 몇 단락을 보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식이 균질적이지 않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오랫동안 지배당해 왔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계급의식 획득이 계급투쟁과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맑스주의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지만 계급의식의 질적 발전을 돕는 혁명가와 혁명가조직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혁명가들을 명확한 강령의 기초 위에 ‘별도의 정치적인 당’ 속에 조직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의식적으로 투쟁의 주인이 되려는 자생적인 의지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조직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레닌)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조직적 문제 자체가 정치적 문제이다.”¹⁶⁾

“공산주의자의 역할은, 계급투쟁의 밑물

과 썰물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불꽃은 없이 연기만 피고 타고 있는 혁명적 경향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 계급의 살아있는 산물이자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성숙에서 능동적 요소이다.”¹⁷⁾

“당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당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거나, 당의 책무가 ‘사건들의 과정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계급의식을 획득하는 실제 과정에서 모든 생명을 죽여 버리게 된다.”¹⁸⁾

이들은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갇혀있지만 계급투쟁을 통해 혁명적 잠재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신뢰하는 맑스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가치형식 이론가들의 이론적 문제를 넘어서서 혁명을 완수하는 공산주의자와 그 조직인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이들의 원칙적 입장을 계급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객관주의적 노선으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주체주의적 역편향의 부정확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의식과 물신성의 틀 속에서만 인식하고 혁명의 실천적 가능성을 구체화시키

15) 위 책, 81쪽

16) 위 책, 160쪽

17) 위 책, 163쪽

18) 위 책, 175쪽

는 데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느낀다. 그것은 혁명 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체제의 억압의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더 깊은 구조가 물질적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이론과 실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객체이면서 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없이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계급무의식의 문제이며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만남의 문제로 나아가게 한다.

4. 자본주의의 억압,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

맑스주의와 심리학의 만남은 부르주아 심리학이 개인에 기반하여 역사와 계급의 구조적 맥락과 분리되고 개인의 합이 사회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함정에 빠져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봉사한다는 비판적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가치, 윤리, 종교, 심리, 예술, 교육, 오락 등의 영역은 모두 그 사회의 계급적 기초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맑스는 실재와 경험의 신비화로서 허위의식으로, 보기를 들어 가난은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는 사람을 별주는 신의 방법이라고 보는 개념으로, 소외의 개념으로, 상품의 물신성으로 이야기 한 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요강」에서 정치경제와 의식의 통합을 말함으로써 맑스 이후의 조야한 경제결정론과 그에 대한 왜곡된 반작용으로서의 자발성주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맑스주의자가 인간 의식과 삶이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아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며 이미 지배 이데올로기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 이전의 모든 사회 의식을 구성하고 있음도 자연스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높은 단계의 사회를 생각하지 못하는 부르주아지의 무능력이 대표적 보기가 된다. 루카치는 이를 “계급 조건화된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바로 이러한 무의식의 문제를 유물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정신분석학이다.

맑스 이후 1세대 혁명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정신분석학을 방어한 사람은 트로츠키이다. 그는 1908년 비엔나에 머무는 동안 프로이트 이론과 만났으며 프로이트 이론이 유물론임을 주장한다. “비엔나 정신분석학과 인 프로이트 학파는 다른 방식으로 (파블로프와) 나아간다. 심리과정의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의 추진력이 생리학적 욕구라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유물론적이다.”¹⁹⁾ 볼셰비키 내에서도 정신분석학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유럽에서는 나치에 의해, 소련에서는 스탈린주의에 의

19) Leon Trotsky, 「Culture and Socialism」, 1925-26, 106쪽

해 이루어졌다.

나치는 1933년 프로이트, 맑스, 아인슈타인, 카프카, 토마스 만의 저작물에 대한 분석 강유를 단행했고, 스탈린은 혁명 이후 진행된 예술, 교육 등의 사회생활 분야의 실험을 중단하고 맑스주의에 조응하는 프로이트 이론의 주창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단행했다. 정신분석의 목적과 방법에 우호적인 혁명가는 루 나르차르스키, 부하린, 트로츠키였고, 이론가로는 레온 비곳츠키, 알렉산더 루리아, 타티아나 로젠탈 등이 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를 유물론적 심리학으로 칭송하고 프로이트 이론을 소부르주아적, 퇴폐적, 관념적 이론으로 비판했다. 스탈린의 최종승리는 1930년 「인간행동대회」에서 잘킨드가 사회주의 건설에 프로이트 사상이 해악적임을 비난하는 연설로 중지부를 찍었다. 이는 결국 5개년 계획과 국가자본에 봉사하기 위해 인간의 개성과 노동의 저항을 분쇄하려는 반혁명세력의 의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맑스주의와 정신분석의 실질적인 수렴은 인간심리(정신)가 자연의 실질노동의 물질적 산물이며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그보다 선행하고 그를 결정하는 무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한 마디로 무의식의 지배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의 중심적 계획이 된다.

러시아 혁명 이후 반혁명적 스탈린주의가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올바른 만남을 통한 맑스 사상과 그 실천을 압살했다면, 유럽에서는 나치즘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소련보다 훨씬 정신분석학 이론 발전의 중심부였던 유럽에서는 훨씬 더 끈질기게 맑스주의와 정신분석의 만남이 지속되었다. 바로 그 중심에 빌헬름 라이히가 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 혁명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성 혁명을 주장하고 다녔던 그는 결국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축출당했고 독일 공산당에서도 제명당한다. 그는 독일 공산당이 성을 금기시하는 부르주아 윤리와 동일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라이히는 유물론적 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과 사회주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맑스에게서 정신활동의 물질적 활동을 부정하는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활동의 현상들을 실천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면 유물론적 심리학의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비록 유물론적 심리학이 이 정신활동을 유기적 과정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²⁰⁾

“정신분석의 자본주의적 존재양식은 정신분석을 안팎으로 목 졸라 죽이고 있다. 프

20) 빌헬름 라이히, 윤수중 옮김, 「성 정치」, 중원문화, 2011, “변증법적 유물론과 정신분석”, 48쪽

로이트가 자신의 과학이 파괴되고 있다고 한 것은 옳지만, 우리는 거기에 부르주아 사회라고 덧붙인다. ...정신분석이 부르주아 사회에 적용한다면, 맑스주의가 개량적 사회주의자들의 손에서 겪은 것과 같은 죽음, 즉 천박화에 의한, 무엇보다도 리비도 이론의 폐기에 의한 죽음을 겪을 것이다. ...

정신분석이 희석되지 않고 적용되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사회주의 경제는 지성과 성생활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바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사회주의에 서만 미래를 가진다.”²¹⁾

“요약해 보자. 변증법적 유물론을 심리학의 영역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상적 정신분석의 성과들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사회학과 정치학에 적용함으로써 맑스주의적 사회심리학에 이를 수 있다. 반면에 심리학 방법을 사회학 및 정치학의 문제들에 적용하면 틀림없이 형이상학적이고 심리학화하는 그리고 더욱이 반동적인 사회학으로 귀결될 것이다.”²²⁾

라이히의 맑스주의 심리학자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입장은 그의 「성 정치」 실천으로 연결된다. 특히 그것은 파시즘의 대중심리에 대응하는 맑스주의 성 정치운동으로 구체화되고 그 당시 독일공산당의 부르주아정치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그가 작성한 성 정치 강령은 자본주의 체제의 성 억압과 성 빈곤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을 결합을 주장하는 빌헬름 라이히는 “혁명정치와 부르주아정치의 차이는 전자는 대중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서는 반면에 후자는 대중의 구조적인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진 무능력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23년 10월 16일, 드레스덴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청년조직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발표했다.²³⁾

1. 당과 당 조직들이 성 정치 문제를 분명히 할 것. 개인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의 분리가 아니라 결합, 즉 성적 존재의 지속적인 정치화가 필요하다.
2. 성 정치 영역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부르주아지만이 이러한 영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휴전을 깨야만 한다.
3. 모든 정치적 지향의 청년들은 성 문제와 관련하여 동원하고, 이들은 다른 조직들에 침투해야 한다.
4. 이것의 전제조건은 혁명 청년 조직들이

21) 윗 책, 99쪽

22) 윗 책, 121쪽

23) 윗 책, 27쪽 재인용

마주한 어려움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다.

1933년 히틀러의 권력 장악, 제4인터내셔널의 성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경험하고 라이히는 1934년 계급의식에 대한 중요한 글을 발표한다. 그는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패배가 다른 나라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파시즘의 도처에서 혁명 운동에 대해 빠르게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2, 제3 인터내셔널 둘 다 실천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론적으로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왔다. 제2 인터내셔널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부르주아 정치 때문이며, 제3 인터내셔널은 자기비판의 부족과 잘못된 태도를 완고하게 고집하고 무엇보다 그 자신의 진영 안의 관료제를 뿌리 뽑을 수 없기(부분적으로는 의지의 부족으로) 때문이다”²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라이히는 자본의 몰수,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 농민, 병사, 피고용인의 지배확립 등은 알고 있는 낡은 개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관료제에 의해 질식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왜 대중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히틀러가 권력을 획득하도록 행동했는다고 묻고 있다.²⁵⁾

그리고 그는 지도부의 계급의식과 대중의 계급의식을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도부는 혁명의식을 대중 안에 가져와야 한다고 우리는 듣는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래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물을 차례다) 우리가 혁명의식이라고 할 때 의미하는 것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어쩔 것인가? 독일에는 마침내 대략 3천만 명의 반(反)자본주의적인 노동자들(사회혁명을 일으키기에 숫자로는 충분한 것 이상인)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가장 완강한 반자본주의적인 심성의 도움으로 파시즘은 권력을 장악하였다. 반자본주의적 심성은 계급의식인가 아니면 단지 계급의식의 시작일 뿐인가, 단지 계급의식이 만들어지는 전제조건일 뿐인가?”²⁶⁾

그러면서 라이히는 광범위한 대중 안에 계급의식의 존재를 알지만 그것은 혁명 지도부의 계급의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도부는 객관적인 역사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획득하는 것 이외에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⁷⁾

- (1) 각기 다른 사회 층, 직업, 연령 집단, 성

24) 윌 책, “계급의식이란 무엇인가?”, 249-250쪽

25) 윌 책, 253쪽

26) 윌 책, 257쪽

27) 윌 책, 262쪽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능성은 혁명의 주체인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에 대한 철저하고 폭넓은 이해에 기반한 혁명지도부(혁명당)의 계급의식의 변증법적 결합이다.”

별에 속한 사람들 안에 잠재해 있는 진보적인 욕망, 관념, 그리고 생각은 무엇인가?

(2) 이러한 진보적 욕망, 생각 등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욕망, 두려움, 사유, 관념(전통적 속박)은 무엇인가?

라이히는 혁명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든 윤리적이며, 혁명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비윤리적이라는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윤리에 대한 태도를 다른 방식의 질문으로 정식화한다.

“부르주아 질서에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 전복의 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계급의식의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부르주아 질서와의 유대[속박]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고 부르주아 질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계급의식의 방해꾼이다.”²⁸⁾

이는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질서에 의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예측되고 억압당하는 구체적 기제와 그와 관련을 맺으면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계급 무의식에 대한 실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실패한 혁명을 지속가능한 혁명의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계급의식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 없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연성만 강조하는 과거의 이른바 “혁명정치”는 결국 부르주아 정치의 쌍생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라이히는 두 정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혁명정치와 부르주아정치의 차이는 전자는 대중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서는 반면에 후자는 대중의 구조적인,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진 무능력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⁹⁾

결론적으로 라이히는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능성은 혁명의 주체인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에 대한 철저하고 폭넓은 이해에 기반한 혁명지도부(혁명당)의 계급의식의 변증법적 결합이라고 주장한다. 대중의 계급의식은 인류의 존재를 지배하는 역사적인 혹은 경제적인 법칙들에 관한 인식이 아니라 ① 모든 영역에서 고유한 삶 욕구들에 관한 인식, ② 그 욕구들을 만족시킬 방법들과 가능성들에 대한 인식, ③ 사회경제적 사회질서가 그 욕구만족을 방해하는 장애꾼들에 관한 인식, ④ 자신의 삶의 필수품들과 그것의 방해물에

28) 윗 책, 270쪽

29) 윗 책, 344쪽

대해 단절하려는 데 대한 자신의 금지와 불안에 관한 인식, ⑤ 대중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억압자의 권력에 대항해 불굴의 힘을 만들어 낸다는 인식이다. 반면 혁명지도부의 계급의식은 대중이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대중을 대신해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본의 명으로부터의 혁명적 해방은 혁명지도부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대중을 이해하기만 하면 충분히 발전된 대중의 계급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할 총괄적 행동이다.³⁰⁾

최근 「국제공산주의흐름」이 발간하는 이론지 「국제평론」(2010년) 140호에서 「과학과 맑스주의 운동」이라는 연속주제 아래 그들은 특집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조직은 과학적 지식과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킬 책임이 있다. 특히 인간사회에 관련된 분야, 인간과 심리에 관련된 분야, 지배계급이 몽매주의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다.”³¹⁾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정신분석학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던 혁명조직이 최근 이러한 관심과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맑스주의의 혁명적 실천을 위해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무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공산주의 사회의 그것과 결합된다는 의미

는, 공산주의 초기단계에서 인류의 우선순위가 노이로제와 정신고통의 원천이 놓여있는 무의식의 깊은 층위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이다.

물론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프로이트의 사상에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이트를 반대하는 현재의 캠페인에 대해 극도의 불신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트로츠키가 주장한 열려진 접근으로 바로 서야 한다.”³²⁾

5. 나오며

백여 년 전 공황이라는 순환적인 자본주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이 증진되는 상승하는 자본주의가 그 정점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한 파괴와 살육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기에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혁명적 전환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공산주의자들의 헌신이 세계를 뒤흔들었다. 자본주의는 전쟁인가 혁명인가, 야만인가 사회주의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었다. 러시아 혁명은 성공했지만 세계 혁명은 실패했고, 자본주의는 단발마적 고뇌에 빠지는 종말로 가는

30) 윗 책, 352쪽

31) ICC, 「International Review」, 1st Quarter, 2010, vol. 140, 24쪽

32) 윗 글, 28쪽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세계혁명의 실패,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라는 반혁명적 세력의 등장,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한 생산력의 파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죽음, 2차 세계대전 이후 25년간의 일시적 호황,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른바 “현실사회주의국가”로 불리던 국가자본주의 국가의 몰락,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과 생태적 위기, 국가부채의 엄청난 증가를 통한 재정위기 등의 공황은 다시 한 번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가속화시키며 야만인가 혁명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혁명의 객관적 조건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역사적 계급의식」이라는 의제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프롤레타리아트 앞에 놓여있으며 우리는 100년 전에 실패한 세계혁명과 그 이후의 반동적 역사를 반성하고 야만의 자본주의 문명을 철폐하고 진정한 문명의 세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맑스의 초기 사상과 후기 사상 이론의 분리가 아닌 변증법적 통합으로 인간의식과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고 혁명의 당위론적 낙관론이나 혁명불가능의 자조적 비판론 모두를 넘어서는 맑스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거듭나야 한다.

첫째, 맑스, 루카치, 그리고 가치형식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본주의의 물상화가 프

롤레타리아를 예측시키고 지배하는 기제와 방식을 철저히 연구하는 동시에 노동자가 가치증식을 넘어 실질적 부의 창조(공산주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의 주체로서 가치형식을 깨뜨리는 능력과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둘째, 맑스, 트로츠키, 라이히 등 계급에 의해 조건화된 계급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욕망과 그 억압, 그 구체적 형태에 대한 인식이 자본주의 철폐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계획의 일 부임을 확인해야 한다. 전도된 의식과 억압된 무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은 분리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셋째,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의 주체임에 틀림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혁명의 주체가 되는 공산주의자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조직은 혁명당이며 그 강령과 혁명전략 전술은 물상화와 무의식에 대한 구체적 연구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 **혁명**

[기고]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복수노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김창연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다. 대다수의 예상대로 복수노조의 시행은 노동자들에게보다는 자본가들에게 이롭게 악용되고 있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 후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새 노조가 생겨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곳은 78개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신규 노조가 47개로, 새로 과반을 확보한 노조의 60%를 차지한다. 서울 도시철도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도시철도에는 기존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이하 도철노조) 이외에도 자회사 노조를 포함하는 도시철도산업노조 도시철도본부(이하 산업노조)와 7월 4일자로 설립신고를 낸 '우리노조'등 2개의 노조가 더 있다. 심지어 제4의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결과 도시철도는 노동자를 7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세 개의 노조를 모두 탈퇴한 노동자, 그 중 2개를 가입한 노동자, 1개만 가입한 노동자, 세 개 노조를 모

인내유무관리번호: 2000073/31연총
등록번호: 2010-2000381

작성처: 김창연(연립추진/노무팀 [제시일: 2011-07-08])
제시관: 노사협력
목적: 교섭하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공고기간: 2011.7.9~7.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1.7.1~7.8) 중 우리공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현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5678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본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우리노동조합
대표자	허 인	김인환	이항진
교섭요구 일자	2011.7.1	2011.7.8	2011.7.8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4,900명	881명	707명

* 참고사항

- 공고문 게시 이후부터 2011.7.8 24:00까지 우리공사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본 공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이 공고되지 않았거나, 공고한 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2011.7.14일까지 우리공사(노사협력실)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7.9.

2011-07-10 오전 08:06:01

두 가입한 노동자까지! (신생노조 2곳을 모두 가입한 노동자는 없다!) 가히 서울도시철도는 복수노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선(?) 사업장이라 할만하다!

세 개로 찢겨나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투쟁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이탈

2010년 7월 공사는 '직무재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34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서 발표한다. 직무재교육이란 각 소속 현장에서 '말썽 많은' 사람, 근무평정이 낮은 사람,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합숙 교육과 봉사활동, 피교육자 상호평가 등을 토대로 대다수를 직권면직 시키고, 소수만을 현장에서 복귀시키는 제도였다. 이미 2009년부터 시행되던 "서비스지원단"(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을 꺾막지 제거, 불법 전단지 수거 등 모욕적인 일을 시켜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보다 한발 더 나간 조직이었다. 이 발표가 있는 후 노동조합은 교육대상자들을 조직하였고, 4명의 이탈자를 제외한 30명의 동지는 노동조합을 믿고 교육거부 투쟁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들 30명에게 직권면직, 즉 해

고를 통보하였다.

첫 번째 복수노조인 "도철산업노조"는 이 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생겨났다. 10대 집행부 지부장¹⁾중 일부가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10대 집행부의 지명파업 지침 등을 거부하였다. 이 후 이들은 조합원을 기존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협박하고, 이 탈퇴서를 작성한 조합원으로 1차 노조설립신고를 냈다. 하지만 명칭하게도 이들은 산별노조를 신고하면서 '도시철도 노동조합원'만을 조합원으로 거느리는 우를 범했고, 설립신고는 반려되었다. 이들은 추후에 유명무실한 자회사 노조를 포함하여 "산별노조"의 모양새를 갖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들이 이처럼 무리하고 급조된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한 데에는 서울지하철 정연수와 함께 제3노총을 만드는 주역으로 함께 하고픈 욕심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 영향도 안 미친 건 아니다. 비록 산업노조로 가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조합원은 탈퇴원서를 작성했고 가뜩이나 힘이 떨어지던 대오는 또다시 움츠러들었다.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조합의 지침을 어기고, 조합원을 탈퇴하도록 조직했던 세력 중 일부는 11대 집행부 선거가 들어가기 직



1) 도시철도의 지부장은 금속 대공장의 대의원과 비슷하다.

전에 두 번째 노조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노조설립이 늦어진 이유는 앞선 산업노조의 해프닝을 보고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용들 내부의 세력다툼 그리고 다수노조인 도철노조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또한 작년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을 방해한 세력임에는 틀림없다.

30명의 직권면직 동지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던 10대 집행부는 사실상 투쟁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한다. 협상을 구걸하고, 시의회를 쫓아다니며, 끊임없는 양보로 일관한다. 그 중 1명의 동지를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까지 겪었지만, 투쟁은 재차 촉발되지 못했다. 이처럼 10대 집행부가 다른 투쟁을 기획하거나 시도하는 생각 자체에 대해, 당시 역무본부장이자 현재 '우리노조' 위원장인 자는 '니들이 투쟁하면 나도 탈퇴하고 노조를 만든다'며 계속 협

박해왔다.

근본 원인

복수노조의 시행은 어용세력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쟁을 방해하게 만들고, 결국 조직을 쪼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10대 총선거가 끝났을 때 '민주연합, 민주파'는 위원장과 본부장 등 상급 노동조합 간부를 장악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조합원을 직접 조직하고 싸워야 하는 노동조합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지부장을 어용세력에게 내주었다. 이와 같은 선거결과는 9대 하원준 어용세력과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사실상 활동가들 전체가 현장을 방치한 데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허리조직이 거의 전무한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한 10대 집행부와 활동가들은 더욱 막중하게 현장을 조직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 하지만 10대 집행부와 활동가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

현장 조합원들이 매우 위축되어있는 상태에서 10대 집행부는 ‘외부적인 충격’(음성직 당시 사장의 퇴진)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판단하고, 각종 로비와 시민사회에 기대는 방식을 취하였다. 필수유지업무 같은 법적 제약과 2010년 4월 서울시장 선거는 10대 집행부가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현장조합원들의 정서와는 분명히 동떨어져 있었다. 자신들의 투표결과에 스스로도 놀란 평조합원들은 어려운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부터의 작은 변화를 내심 기대하였다. 평조합원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행동을 할 준비는 많이 부족하였지만, 현장의 지부장보다 위원장이 더욱 힘이 세보였고, 그래서 무엇인가 변화될 것을 진정으로 바랐다.

전박적인 전략이 그렇게 잡히니, 선거 직후부터 2009년 임금협약까지 보여준 10대 집행부의 모습은 현장 조합원들을 전혀 조직하지 못하였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현장에서 투쟁을 벌이는 데 난색을 표명하였고,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위원장, 본부장이 아주 작

은 지부 현안문제에 올인 해 집행부가 박살나는 안 된다며 계속 투쟁을 회피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였는데, 2009년 임금협상은 별다른 싸움도 없이, 심지어 쟁점화조차 시켜내지 못하고, 위원장이 직권조인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게 만들었다.

당시 도시철도 내 유일한 현장조직이고 10대 집행부를 만들었던 ‘도시철도 민주노동자회’는 대다수가 10대 집행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비판에만 치중하였다. 10대 집행부의 정세판단을 공유한 것이다. 물론 일부 민노회 활동가들은 집행부에게 투쟁을 조직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압박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민노회는 스스로 투쟁의 지도부를 자임하여 집행부와의 투쟁을 병행하며 현장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현장 공동화→ 조합원의 위축 → 노동조합 집행부의 위축 → 현장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10대 집행부 마지막까지 지속되었다.

복수노조 시행 법률이 보여줄 폐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얼마 전 도시철도노조는 11대 총선을 치렀다. 10대 집행부를 계승한 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든 다른 어용세력이 집권하든 별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공사는 이례적으



현장은 조합원의 것!

하지만, 세균 현장은 사장의 것이고, 소수 관리자들의 것이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황우진 후보만이
생동하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

민주연합에서 분화된 현장투쟁 선본 자료집 중에서

로(최초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지부장, 모든 본부장까지 민주연합과 민주연합에서 분화된 현장투쟁 선본이 당선²⁾되었다.

그리고 공사는 이제 4700명³⁾의 도철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어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다. 공사는 노동부의 지침과 다르게 산업노조나 우리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세력을 제4의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해 부추기고 있다. 또한 기존 우리

노조나 산업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물론 공사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하지도 않고 전면에 나서지도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우리노조나 산업노조가 어용세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입하면 약간의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뿐이다. 우리노조나 산업노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조합원들이 가졌었던 “조직을 깨는 나쁜 놈”이란 정서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기존 민주파들이 매우 관료적이고, 어용세력과 점점 닮아가는 모습에 “어용이나 민주파나 다 똑같은 놈”이라며 다른 노조로 대거 가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조합원 이탈이 당장 닥친 급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타임오프, 필공사업장의 파업권 박탈로 이제는 투쟁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은 민주파 활동가들은 복수노조에서의 문제를 지극히 ‘노동조합스러운’ 방식으로, 결국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다수노조가 모든 것을 다 먹는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철노조가 최대 다수 노조이기 때문에 지금 교섭이 열린다면 향후 2년간 다른 노조는 교섭권이 없다는, 말하자면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을

2) 일부 노동계 언론은 이번 도시철도선거에서 3명의 본부장만이 민주파라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주연합에서 분화된 현장투쟁 선본을 민주파로 분류하지 않은 오보이다. 현장투쟁선본은 10대 집행부를 비판하고, 보다 더 투쟁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그 기치로 삼았다.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신고된 조합원의 수이다. 신고된 조합원 수는 각각 도철노조 4700, 우리노조 800, 산업노조 700이다. 그런데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도시철도 총 직원의 수보다 많다! 이와 같은 숫자는 이중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도철노조 선거에서 총 투표인원은 3200명으로 신고된 조합원수와는 차이가 많다.



오히려 민주파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10대 집행부 마지막에도 진행되었는데, 10대 집행부는 투쟁을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할 생각도 없이 “교섭을 열도록” 하기 위해 공사측에 애걸복걸 했었다. 또한 “복수노조 시대에는 조합비가 경쟁력”이라며 조합비를 인하하고, 과거 민주파들의 성과를 과장해서 포장하고, 민주파들의 희생을 포장해서 선전한다. 심하게 말하면 노동조합 간부들이 거의 “보험상품을 파는 세일즈맨” 수준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우리노조나 산업노조가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저들도 “우

리가 곧 다수노조가 될 것”이며, 조합비도 싸고 과거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었다는 식으로 선전해내고 있다.

타임오프⁴⁾와 필공사업장⁵⁾, 복수노조가 만들어내는 폐해가 바로 이것이다. 민주파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전투성은 거세당하고, 교섭과 교섭의 주체가 되는 본부장, 위원장 등 상급 임원들에게 목을 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노조가 만들 폐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모습은 평조합원들이 기존 도철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인 우리노조나 산업노조로 가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복수노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기 위하여

현재 도시철도에서 벌어지는 복수노조의 문제, 즉 조합원의 어용노조로의 이탈은 앞서 말한 ‘노동조합스러운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현장이 공동화되

4) 타임오프를 현재 위원장과 상급단체 파견자만 사용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노동조합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지부장들은 이제 더 이상 전임이 아니고, 따라서 집회나 농성등에 부담감을 느낀다.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없는 집회나 농성등은 각종 투쟁방식은 근태로 바라 잡고, 그에 따라 임금보전, 징계등을 감수해야만 한다. 민주파 지부장이 징계등 낙인 찍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임금보전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현장 지부장들이 투쟁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부, 위원장등 상급단위에 기대는 경향은 더욱 늘어난다.
5) 작년 10대 집행부는 완벽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합법파업’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는 전혀 투쟁의 전술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철도의 경우는 그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타임오프, 필공사업장, 복수노조를 한 쌍으로 놓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마음가짐 즉 법적인 테두리를 뛰어넘는 투쟁을 스스로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민주파들이 관료화된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철노조가 10대 집행부 시절 가졌던 전략, 즉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 혹은 진보적인 정당의 수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철노조 10대 집행부가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지원하고 활용하여 30명의 직권면직 동지들이 복직하고, 음성직 사장이 물러났어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닌 성과로는 결국 현장이나 현장 조합원의 정서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⁶⁾

먼저 노동조합을 완전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 '소통'은 자본가들의 수장인 이명박, 오세

훈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해야 한다. 지금 도철노조 조합원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선 많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도철노조의 조직형식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궤도연대 총파업에 임하면서 만들어졌던 소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0-20여 명 단위의 조합원을 묶고 소조직장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 소조직장들에게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이 빠진 소조직장은 자칫 평조합원들을 감시하는 체계로 전략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부장 대의원도 못 세우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6) 나의 주장이 총선, 대선에 기권하자는 것이 아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2010년 4월 합법적인 방식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려했던 도철노조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기껏해야 민주당 후보들과 교류하거나, 조합원중 일부가 후보자로 나오는 전술 말고는 할 수 없었다.

않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 때 만 사람들을 만나고 결의를 시킬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이 없이는 위와 같은 재편 전략은 이뤄질 수 없다. ‘선거’나 ‘721 귀도 연대파업’과 같은 사안이 있었기에 지부장, 소조장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아주 작은 현장 사안이나, 7호선 연장운행 인원충원과 같이 큰 사안에 입장과 요구조건을 내걸고, 아주 자그마한 조직으로 노동조합을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교섭’이 아니라 ‘실천투쟁’을 기획하고 조합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



조합주의를 벗어던지고, 세상을 바꾸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각오로 법 테두리를 넘어 투쟁하는 것이 복수노조가 가져 올 피해를 막는 유일한 게이트이다.

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타임오프, 필공사업장, 복수노조를 한 쌍으로 놓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마음가짐, 즉 법적인 테두리를 뛰어넘는 투쟁을 스스로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고와 구속이 따르겠지만, 이를

감수할 태세 없이는 투쟁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자본주의가 다 망해서 막장까지 간 상황에서 해고와 구속이 뭐 그렇게 두렵겠는가. 도시철도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 대사업장들이 이러한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한 복수노조 문제로 더욱더 식물노조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다. 자본주의 세상도 갈 데까지 간 상황이지만, 노동조합들도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실로 비상한 결의와 태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복수노조가 가져올 폐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조합주의를 벗어던지고, 세상을 바꾸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각오로 법 테두리를 넘어 투쟁해야 할 때다! **혁명**

[기고] 노동조합투쟁과 '사회주의자' 조직

김태훈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한 폭압과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무수한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니 자본가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 사기 치며 거품을 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하에서조차 진짜 많은 것을 빼앗겨 온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도 살아야겠다 라고 몸부림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한 줌 자본가들만의 천국이고 지긋지긋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이자 비정규직·정리해고·노예노동의 체제인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사회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많은 조직들이 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의 투쟁들을 돌아볼 때, 사회주의와 노동자혁명을 내걸고 분투했던 사회주의 조직들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투쟁현장 가까이에서 노동조합원으로 사회주의자들의 투쟁결합을 바라보며 느꼈던 점을 밝히고 사회주의 조직과 사회주



의자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실천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했음을 밝혀둔다.

노혁(추), 사노위, 노건투, 사노련, 사노신, 노해투사,

그 정치나 규모, 현재 활동여부를 떠나 명시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노동자투쟁에 연대하고 결합해 투쟁하였거나 투쟁하고 있는 조직들이다.

이와 별개로 사회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의 정당들과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등

의 단체, 노동전선, 전국회의 등의 노동조합 운동 내의 정파조직 등 무수한 단위들이 노동자투쟁(더 정확하게는 노동조합투쟁)에 결합해오고 있다.

위에 거론한 조직 가운데 일부 조직은 현재 노동자운동이 보수화·개량화 되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정치를 받아들일 준비는커녕 적대감을 표출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지금은 내실을 다지고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며 노동자투쟁에 ‘기권’했다. 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터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며 그 투쟁들을 통해 정세반전을 꾀하거나 사회주의 정치를 전파하고 조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조직들도 있다.

여기서는 각 조직들의 정세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노동자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한 제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몇 년 사이의 대표적인 노동자투쟁을 보면, 코스콤,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GM대우 비정규직지회,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동희오토비정규직지회, 쌍용자동차, 학습지노조(대교, 한솔교육, 재능교육), KEC, 전북지역 버스노동자투쟁,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발레오공조코리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의 투쟁을 들 수 있다. 지역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망라한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열거한 투쟁 대부분에 사회주의 조직은 물론이고 제 정당과 단체들이 개입했음은 물론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이라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싸우면서 계급정치를 설파하고 단위사업장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투쟁을

조직해 정세반전을 꾀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구사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이는 비단 사회주의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제 사회주의 조직은 과연 그러했던



가? 단연코 아니다.

무원칙, 전략의 부재, 전술적 혼란

우선 소규모 사회주의 조직들의 제한적인 역량배치의 문제부터 보자. 정말 어떤 때에는 이곳 저곳에서 투쟁이 벌어져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하기에 제한된 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본가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하고 투쟁사업장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힘을 집중 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조직들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었다.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사업장에 일단 결합하기, 자기 조직원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나친 역량투여(따라서 동일한 시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다른 투쟁에 대한 방기), 이 현장 저 현장 무턱대고 한 번쯤 가보기 등 과연 노동조합투쟁 개입과 관련한 원칙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둘째, 실 새 없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자본가언론의 왜곡선전과 참주선동에 맞서, 실상은 자본가계급에 투항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된 중간계급 이데올로기에 맞서, 노동자계급을 위해 분투하지만 번



지수를 잘못 택한 잘못된 정치에 맞서, 당면 투쟁의 전진과 승리는 물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일관되고 적실하게 공급했는가를 봐도 역시 “아니올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강변해 봐도 위에 열거한 무수한 투쟁이 이를 반증한다. 코스콤 투쟁을 거치며 등장한 ‘중규직’, ‘무기계약직’, 이제는 당연빵이 되어버린 선별복직과 순차복직, 반성문과 다름없는 각서, 투쟁의 결정적 국면마다 등장하는 양보안…….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가능하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비없세, 희망버스 기획단에 의해 좀 더 현실적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현실은 또 어떤가?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가 단지 구호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입증해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노동해방 세상,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정리하고도 비정규직도 없고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하며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 단지 구호가 아님을 노동자계급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대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이를 현실화시켜 내기 위한 실천의 결합이 너무나 미약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주야농성, 선전진, 집회에 거의 매일 결합하며 갖은 고생을 다해도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한두 번 행차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쓸러가거나 개량주의 정당이라 비판하는 이른바 진보정당들과의 차별성도 모

호해지면서 계급정치는 제대로 전파되지도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실적 영향력의 압도적 열세와 물량지원 역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주관적 조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은 혁명적 정치에 어울리는 실천뿐이다. 투쟁의 매 순간마다 그리고 결정적인 국면이 닥칠 때 누가 진정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철저하게 끝까지 옹호하고 관철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쓰러린 패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그 교훈을 일반화해 전파하고 조직하고 다시 투쟁하는 것에 달려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실에서 수 없이 적용되고 검증된 사상이 있지 않은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제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자. 지난 몇 년 동안의 치열한 계급투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살펴보자. 노동자계급해방 사상을 움켜쥐고 원칙과 강령,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버려 너무나 끔찍한 자본주의 세상 이제는 갈아엎어야 하지 않겠는가?

혁명

[독자비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발걸음에 든든한 깃발이 되길

— 〈혁명〉 창간준비 1호를 읽고 —

“

다수 정치조직들의 신문형식의 기관지와 달리 정세적 주요사안과 정치적 주제를 신문보다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강화하면 좋을 것이다. 단순한 토론용 기사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전술적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적확성과 예리함, 일관된 방침제시와 함께 주요한 현장투쟁에 대한 밀착력 있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수록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다. 주요한 현장투쟁의 사안과 함께 학습지재능투쟁 기고글과 같이 현장에서 투쟁하는 투사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곳보다 꾸준하게 수록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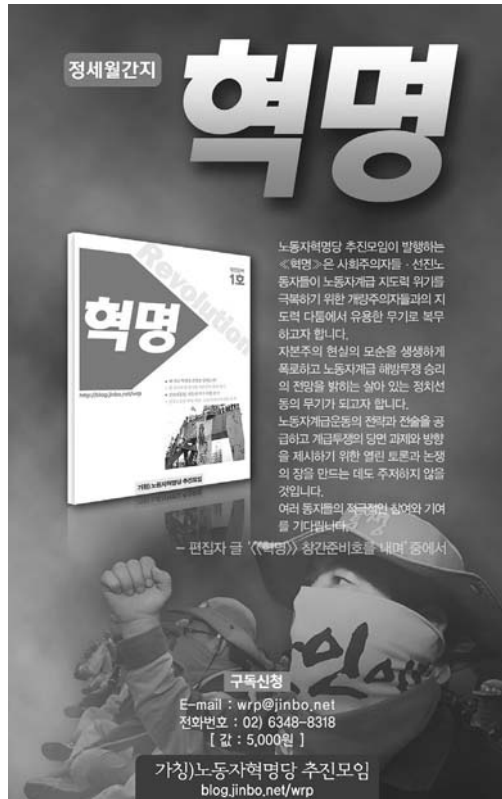
”



추상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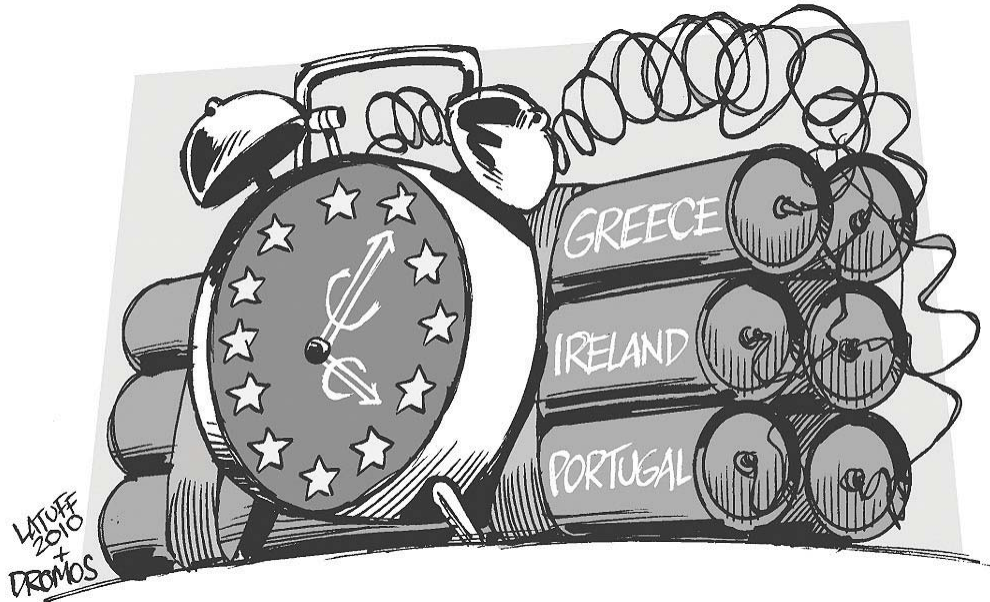
〈혁명〉 창간준비 1호(이하 ‘혁명1호’)는 ‘왜 지금 혁명당 건설을 말하는가?’라는 선언적 글로 서두를 연다. 만성적 경제위기를 넘어 공황의 실체가 세계 자본기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현 시기 자본주의 하에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불안전하나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노동자투쟁의 전선이 형성되는 지금은 다시금 야만이나 사회주의 혁명이나를 근본적 물음으로 던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혁명세력의 부재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 받는 노동자계급 투쟁이 한국에서 역시 다르지 않은 척박함 속에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에게 ‘혁명당 건설’의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그렇다. 이 글에서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를 망라해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혁명’의 깃발을 치켜 올려야 할 때다. 스탈린주의와 사민주의로 사회주의가 먹칠이 될 때 노동자계급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혁명’을 잃었다. 한국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노개투 총파업까지 노동해방이라는 추상적 구호 속에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을 새겼으나 조합주의와 개량주의정당의 거간꾼 노릇에 이미 사회주의혁명은 물론 노동해방이라는 구호 역시 사라졌다. 하지만 한국 역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부로서 혁명적 잠재력을 지닌 노동자투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개되고 있다. 지금 노동자계급은 혁명주의 세력에게 전투적 조합주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개량주의와 구분되지 않는 중도주의 잡당 정치가 아니라 분명한 혁명정치를 요구한다. 이것은 곧 혁명당 건설의 당면과제로 연결되며, 이로부터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기관지 명칭이 추상적 노동해방이나 추상적 사회주의가 아닌 ‘혁명’이라는 점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개량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관료

‘혁명1호’는 이어지는 세 개의 글에서 현 국가부채 위기가 세계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의 한 현상임을 제기함과 동시에 개량주의 정당들의 본질이 자본주의 체제유지 정치임을 비판한다. 이미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통해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가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진 후로 세계 각국의 국가 파산 위기와 금번 미국의 경제위기까지 현 자본주의 체제는 과잉축적 위기로 인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뇌관을 감춘 채 근근히 유지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가들과 온갖 진보적 탈을 쓴 개량주의자들뿐이다. 이들은 현 국가부채 위기가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근본적 원인을 두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사회주의자들 역시 제국주의 시대임을 인정하는 대신 제국주의 시대 규정을 ‘자동붕괴론’과 ‘파국론’ 따위의 유치한 논조로 비판한다. 이들의 대안은 너무도 명백히 공상적임을 ‘혁명1호’는 밝히고 있다.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 위기가 아님을 노동자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 실질임금 삭감, 비정규직화, 만연한 정리해고, 청년실업... 이에 대해 자본가들이 내놓는 대책에 대해 이미 노동자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개량주의자들의 공상적 해결책은 믿는다. 이미 각종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개량주의 정당들의 정책이 현 정권에서 격렬하게 저지되는 것을 실감한 노

동자들은 개량주의 정당들의 집권을 대안이라 여기지 않는다. 촛불시위부터 희망버스까지 그 중심에 위치한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의 폭발적 투쟁에서 우리는 아직 정립되고 체계화되지 않았으나 전반적 체제위기를 감지하는 새로운 노동자층의 본능적 반응을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개량주의 정당들은 민주대연합 및 그 연장선에 있는 진보대통합이라는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정부 구상으로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있다. ‘혁명1호’는 이에 대해 이제는 소극(笑劇)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 타락하는 역사적 과정을 간략히 서술한다. 진보대통합은 이제 고작해야 총선·대선 선거대응을 위한 개편이며 인민전선의 재판이라는 결론으로부터 사회주의/공산주의 전망에 기초한 당운동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이어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에 대해 ‘혁명1호’는 단호하게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노동자계급을 자본가에게 팔아넘기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함과 함께 민주노동당 강령 전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0여년이 넘는 한국 진보정당운동은 이제 개량주의 정당과 관료화된 노동조합이라는 ‘양날개’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자본가에게 투항시키는 반노동자계급 정치를 서유럽과 같은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류는 개량주의 정당 내에서 노동자대중과 함께 하는 노동자운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는 개량주의 정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회주의 세력 역시 관료화된 노동조합에 대한 근원적 비판을 회피하고 전투적 조합주의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료화된 노동조합과 단절하지 못하고 이러한 비판을 ‘노동조합 포기’라고 속보이는 주장을 하는 모든 추수주의세력의 정치적 역할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정치적 자립성을 지키며 노동자 직접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서 혁명세력의 고유

한 과제와 역할이 요구된다.

노동조합 운동의 쇠퇴와 노동자투쟁의 희망

‘혁명1호’는 주간연속 2교대 투쟁과 2차 희망버스 평가의 두 가지 현장투쟁 기사를 수록했다. 최근 정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두 가지 투쟁에 대한 글로서, 둘 다 현재의 노동조합 운동의 실태를 절실히 보여준다. 사실상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과 유성기업에 대한 계급적 연대를



기권한 현대차지부, 정리해고에 합의한 한진중공업의 어용집행부. 이러한 노동조합들의 현상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문제를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과연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 체제 내의 조직이라는 이유로 기권한다면 이는 결정적 오류일 것이다. 선진노동자들과

혁명세력은 오히려 노동자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 고유의 특성을 확대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노동자의 대중투쟁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가 단지 ‘전투적’인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 강령을 가진 혁명정당의 개입과 선진노동자들의 결집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혁명정당의 건설이 폭발적인 노동자투쟁의 가능성이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현재의 자본주의에 결정적 일격을 가할 노동자계급의 무기이자 과제임을 ‘혁명 1호’에 실린 한 글에서 생생히 볼 수 있다.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준혁명적 상황의 그리스에서 노동조합 지도부와 개량주의 정당들의 투쟁 파괴에 맞서 혁명정당 건설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 파업위원회, 노동자 정방대 같은 이행요구를 제기, 실행하는 것이 승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함을 이 글은 잘 보여준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현 시기 언제든 대중적 투쟁이 폭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때에 더더욱 준비된 혁명정당 건설을 위해 선진노동자들과

투사들이 결집하는 것이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투쟁하는 투사들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기고글 ‘장기투쟁사업장 : 이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자세를 갖고 싸움에 임해야 하는지 단호한 투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전망이 없다고 상급단체를 비롯한 많은 노동조합 조직이 사실상 기권했지만 끈질기게 원칙을 고수하며 투쟁하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은 표현된 활자 그대로 “결코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기를 지금도 자본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상급단체 등을 통한 대리교섭, 양보교섭으로 얼룩지는 선례가 아닌, 투쟁으로 당당히 쟁취하겠다는 이러한 노동자투사들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바람과 기대

혁명1호를 읽고 다음과 같은 바람을 갖게 된다. 또 하나의 기고글 ‘복수노조 시대 :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할 것인가?’는 시의적절한 비평임에 분명했고 현재 개정노조법 관련해 많은 사업장에서 투쟁전망 수립에 고민과 혼란에 빠져있다. 민주노총, 산별연맹 차원의 어떠한 전술방침도 없어 단위사업장 노조별 각개대응에 매몰되어 있고 법리적 해석에 따른 다툼이 상당부분 시간을 차지할 것이다. 복수노조 관련 투쟁 및 대응에 주요한 전술적 방향제시와 함께 미조직 노동자 조직의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는 기획도 필요하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글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개량주의자들과 실상 이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자본주의 반대에 머무르는 이른바 좌파들에 대응해 혁명세력은 분명하게 제국주의 시대 자본주의체제는 더욱더 깊은 붕괴와 위기로 스스로를 몰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학살이나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이냐로 판가를 날것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은 선진노동자들과 투사들에게 예리한 시각과 혁명적 인식의 기초가 되어줄 것이라 본다.

또한 기존 다수 정치조직들의 신문형식의 기관지와 달리 정세적 주요사안과 정치적 주제를 신문보다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강화하면 좋을 것이다. 단순한 토론용 기사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전술적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정확성과 예리함, 일관된 방침제시와 함께 주요한 현장투쟁에 대한 밀착력 있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수록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다. 주요한 현장투쟁의 사안과 함께 학습지재능투쟁 기고글과 같이 현장에서 투쟁하는 투사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곳보다 꾸준하게 수록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투사들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발걸음에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 모임과 <혁명>지가 굽힘없이 나부끼는 깃발이 되길 '혁명1호'를 읽고 굳게 기대한다. **혁명**

독자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활동을 통해 반드시 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동지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혁명의 깃대를 굳게 움켜 쥐고, 붉은기 높이 들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쟁취하여,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동지들! 더 이상 머뭇거림을 멈추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함께 합시다!

[후원 및 정기구독 계좌]

우리은행 1002-735-860549 (오세철)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및 독자기고]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신청하시면 답메일을 드리거나 전화통화하여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jinbo.net/wrp>

혁명 창간준비 2호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발행하는 《혁명》은 사회주의자들·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살아 있는 정치선동의 무기가 되고자 합니다.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공급하고 계급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열린 토론과 논쟁의 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기다립니다."

- 편집자 글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중에서 -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